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몽골족과 漢族의 신화 비교 연구

濟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다와뎀베렐

2019年 2月

몽골족과 漢族의 신화 비교 연구

지도교수 조성식

다와템베렐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2월

다와템베렐의 중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8년 12월

目 次

| | |
|----------------------------|----|
| I. 序論 | 1 |
| 1. 研究 動機 및 目的 | 1 |
| 2. 既存 研究 概況 | 2 |
| 3. 研究 對象 및 方法 | 3 |
| II. 몽골族 신화와 漢族 신화 비교 | 5 |
| 1. 몽골족과 한족의 신화관 | 5 |
| 2. 몽골족과 한족 신화의 내용 | 7 |
| 1) 주제에 따른 분류 | 8 |
| ① 창세 신화 | 8 |
| ② 영웅 신화 | 13 |
| ③ 자연 신화 | 28 |
| ④ 기타 신화 | 30 |
| 2) 토템에 따른 분류 | 32 |
| ① 몽골족 토템 | 32 |
| ② 한족 토템 | 34 |
| 3. 몽골족 신화와 한족 신화의 특징 | 34 |
| ① 몽골 신화 | 34 |
| ② 한족 신화 | 39 |
| 4. 문학과 신화 - 중국을 중심으로 | 40 |
| ① 신화와 소설, 산문 | 40 |
| ② 신화와 시 | 42 |
| ③ 신화와 漢賦 | 44 |
| III. 결론 | 46 |
| 참고문헌 | 47 |

I. 序論

1. 研究 動機 및 目的

필자는 중국문학이라는 광범위한 세계에 들어가면서 과연 문학이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중국문학에서 韻文인 詩는 원시 인류의 읍조림(吟詠)에서 시작되어 民歌로 발전하여 《詩經》에 채집됨으로써 정형화되기 시작했고, 散文은 갑골문에 그 雛形이 보이는데 先秦시대에 이미 政論산문과 역사산문, 哲理산문으로 분기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소설이나 희곡은 당연히 그 이후에 발전한 문학 장르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학적 상상력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필자는 문학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문학적 상상력의 始原으로서 神話에 관심을 가졌다. 신화는 지금 우리들의 이성적인 눈으로 볼 때 황당한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후대 문학의 원류이자 원형으로 담고 있는 상징체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몽골은 지리적 인접국으로 유사한 자연 환경의 공유로 인해 사유뿐만 아니라 신화의 서사 구조에서도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면서도 농민은 정착 생활, 유목민은 유목 생활이라는 생활 기반을 바탕으로 나름의 문화를 형성하였다.

두 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상호 문화교류가 있었으며, 특히 元나라를 통해 거대한 민족교류를 경험한 바 있다. 하지만 몽골족과 중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지닌 한족은 인종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오랫동안 교류를 했다고 하나 근본적으로 다른 민족이다. 특히 자연환경 면에서 몽골은 초원이 많기 때문에 유목민족으로 오랜 전통을 이어왔고, 반면에 중국의 한족은 농업 위주의 생산양식에 따라 토착민족으로 오랜 역사를 이어왔다.¹⁾ 이런 점에서 몽골과 중국은 서로 다른 생활양태와 역사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같은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정착민과 유목민의 생활 모습과 자연에 대한 인식은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신화는 그

1) 王船山, 〈讀通鑒論〉, 卷二十八에 따르면, “지킬 성곽, 이윤을 추구할 시장, 경작할 田畝, 납부할 세금, 영예로운 혼인과 벼슬길, 이것들이 농업 문명에 대한 서술이라면, 저들이 물과 목초를 좇고, 수렵을 하며, 군신을 잇고, 혼인과 벼슬길을 가볍게 여기며, 끝도 없는 초원을 자유롭게 치달리는 생활을 편안히 여기는 것은 유목 문명에 대한 개괄이다.(有城郭之可守, 墟市之可利, 田土之可耕, 賦稅之可納, 昏姻仕進之可榮)” 하지만 이는 중국 한족의 관념이 깊이 배여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인식을 비교할 좋은 소재이다.

필자는 중국문학을 공부하면서 특히 신화에 관심을 갖고 몽골족과 한족의 신화가 어떤 상사점과 상이점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몽골족과 한족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업민족으로 한족과 유목민족으로서 몽골족의 우주와 자연에 대한 원초적 관념이 곧 신화에 담겨져 있다면 본 연구를 통해 한족과 몽골족의 원초적 상상력이 어떤 내용과 특징을 지녔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2. 既存 研究 概況

신화에 관해 서양은 물론이고 중국에서도 이미 많은 연구 성과가 나온 바 있다. 신화는 앞서 말한 바대로 후대 문학의 원형을 담는 상징체계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문학연구에서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여기서는 먼저 중국 신화와 몽골 신화 연구에 대한 간단한 개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중국 신화 연구의 대표적인 성과물은 바로 중국의 神話大使라고 해도 될 학자 원가(위앤커袁珂)의 《中國古代神話》이다. 그 외에 원가(위앤커袁珂)의 《古神話選釋》, 《山海經校注》, 《神話論文集》, 《中國神話大詞典》, 《中國神話傳說》 등이 있는데, 중국의 신화와 전설을 집대성 했다. 원가(위앤커袁珂) 외에도 沈雁冰 《中國神話研究ABC》, 徐旭生 《中國古事的傳說時代》, 聞一多 《神話與詩》 등이 있다. 중국의 여러 학자들은 신화 연구에 주목해 왔고, 연구를 했지만 대부분 역사, 고고학 등과 관련지어 연구된 것이 많다. 그러나 원가(위앤커袁珂)는 신화 자체만을 연구한 학자라고 할 수 있다.

몽골 신화의 여러 형태를 망라한 약 161개의 원 자료가 해설과 함께 수록되어 있는, 학자 Tserensodnom의 《몽골 민간 신화(MONGOL ARDIIN ULGER)》가 있다. Tserensodnom은 몽골의 신화 자료를 수집하고 신화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한 설문지를 만들고, 민간 구비문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배포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학자이다.

창세신화 관련 서적 자료로는 신화아카데미 《세계의 창조 신화》와 영웅 관련 《세계의 영웅신화》 등이 있다. 또한 영웅 신화 선행 연구 자료로는 이인택

<중국 영웅 신화의 비교 분석(울산대학교, 1999)이 있는데, 이 자료에는 영웅의 탄생 형태에서 한국과 중국의 영웅 신화를 비교해 놓았다. 그 외에 내몽골 杨巴依의 <蒙漢創世神話比較>, 內蒙古师范大学学报 (1994), 滿都呀 <蒙古神話論文> 中央民族大学学报 2007 등이 있다. 내몽골 민속학자 오병안(烏丙安)이 신화를 인문(人文)과 자연신화와와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오병안(烏丙安)은 <민간문학 개론(民間文學概論)>, <중국민속학(中國民俗學)>, <신비한 샤만세계(神祕的薩滿世界)> 등의 저서가 있으며 민속학 방면에 빼어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학자이다. 이 자료들을 토대로 활용하여 비교학적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3. 研究 對象 및 方法

몽골족과 한족의 신화는 다양하고 또한 방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대상을 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신화자료를 분류하는 방법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중국 한족과 몽골족 주류 신화와 중국과 몽골 내 소수민족의 신화로 분류하는 방식.

둘째, 전승 방식에 의한 분류로 문헌신화와 구전신화로 나누는 방식.

몽골은 상당히 방대한 지역이기에 신화도 분리되어 발달해 왔다. 즉, 몽골은 크게는 중앙의 몽골 외에도 중국 쪽의 내몽골 자치 구역, 러시아 쪽의 몽골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종교적으로 본다면 바이칼 호수를 중심으로 동쪽은 불교권, 서쪽은 기독교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샤머니즘을 바탕으로 동쪽은 불교의 영향을 받은 신화 전설이, 서쪽은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신화 전설이 발달해 왔다.

몽골신화의 자료상, 변천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몽골 신화는 중국 신화와 비교해 볼 때 신화의 원시적 자료가 부족하고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자료가 여기 저기 흩어져 있으며, 후대로 갈수록 신화는 변형화, 역사화 퇴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는 점 눈의 띄게 확인 할 수 있었다.

몽골민족의 태고의 사실을 신화로써 전승하는 문헌이 바로 13세기에 편찬된

《元朝秘史》이다. 《元朝秘史》은 몽골 최고 역사이자 설화 집성으로 몽골인의 역사는 물론, 고증세 언어와 민속, 유목민들의 조상 신화와 건국 과정을 서술하는 역사서로서 몽골의 철학과 사상, 신화와 전설, 생활문화, 군사제도, 사회조직 등을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이며 유일한 <國民古史神話> 이다.²⁾

漢族의 고대 신화 자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역시 《山海經》, 《楚辭》 《淮南子》 《天問》 등이 있는데, 《山海經》에는 수많은 신화 자료들이 들어 있다. 이러한 문헌을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제2장 본론 부분에서부터 두 민족 신화의 기본 틀을 이루고 있는 신화들로 시작하며 신화가 소설과 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또한 현재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문학 분야에 담겨 있는 신화를 밝히고 몽골과 중국 신화가 어떻게 변화하여 발전해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몽골비사》의 연대와 저자는 불분명하다. 저자는 미상이라도 성서연대는 1228년, 1240년, 1252년, 1264년 등 역사가들의 여러 견해들 중 칭기스칸의 붕어(崩御) 이후인 1240년으로 보는 견해가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다.

Ⅱ. 몽골族 신화와 漢族 신화 비교

1. 몽골과 중국의 神話觀

인류는 자연환경에 따라 각각 다른 문화, 종교, 사회제도 등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민족과 종교에 따라 신화도 각기 다른 형태와 빛깔을 가지게 된다. 신화는 이렇듯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역사와 종교, 철학과 문학이 공존한다. 특히 신화는 문학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신화와 문학의 관계에 대해 Richard Chase는 신화는 문학이며 인간의 상상력의 심미적 창조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John B.Vickery는 신화와 문학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바 있다.

“신화는 일종의 모형(母型)을 형성하는데, 문학은 바로 그 모형으로부터 사실적(事實的)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출현하게 된다. 그러므로 문학적 구성, 인물, 주제 및 이미지들은 기본적으로 신화와 민담의 유사한 요소들의 복합이나 전이인 것이다.”³⁾

이로 보건대 문학의 원형은 신화에서 이미 정해진다. 따라서 문학 연구에서 신화는 단순한 소재 차원이 아니라 총체적인 층차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신화의 기본 정의는 무엇인가? 神話란 말 그대로 신성한 또는 신령스러운 이야기이자 史前 歷史라고 할 수 있다. 신성하다는 것은 신비롭고 환상적이며, 영원하고 현실을 초월하는 초현실적인 神異한 이야기라는 뜻이다. 그것은 神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초현실적인 일이나 영웅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렇듯 時空을 벗어나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는 모종의 신성함과 초현실적인 이야기가 바로 신화이다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토대로 삼고 있는 문학과 필연적인 관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물론 신화가 신성한 이야기라고 해서 신화의 정체가 다 해명된 것은 아니다. 신성성은 신화의 여러 성격 가운데 대표적인 속성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몽골인들의 신화관은 무엇인가?

몽골인들은 신화를 ‘Domog’(신화), ‘Domogzui’(신화학)으로 번역하고 있다.

3) John B.Vickery, 《Myth and Literature》, 9쪽

4) 郭珠英, 〈한중 신화의 비교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

‘Domog’이라는 낱말의 말 뿌리는 ‘Dom’이다. ‘Dom’의 사전적 풀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직 과학적으로 해명되지 않은 전통적인 치료 방법과 수술 치료.

둘째, 어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유효하다고 여겨지는 상징 의례.

말의 근원이 같다는 점에서 ‘Dom’과 ‘Domog’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몽골인은 신화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대처하는 역량이자 일종의 의식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인들의 신화관에서 살펴보겠다.

중국 고대 신화는 대부분 《山海經》, 《左傳》 《史記》 등의 고전서적에 흠어져 실려 있다. 이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개벽편(開闢篇) - 세상이 시작되는 천지개벽의 시기에 관련된 신화들의 모음이다. 여기서 중국 천지 창조인 주역인 반고가 등장한다.

황염편(黃炎篇) - 황제와 염제(신농, 태양의 신이자 농업의 신) 사이의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들의 모음이다.

요순편(堯舜篇) - 중국의 태평성대의 대명사인 요임금과 순임금 시대에 대한 신화이다. 사실, 요순시대가 실제로 존재하였는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에 신화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요순편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순’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순은 제준이나 제곡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우편(羿遇篇) - 요임금 시대의 영웅 ‘예’에 관한 이야기와 우임금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특히 예의 이야기는 중국 영웅 신화의 백미라 할 만한 것이다.

하은편(夏殷篇) - 제목에서도 나타나듯 중국 전설 속의 나라라는 한나라와 은나라 시기의 이야기이다. ‘하은편’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는 주로 사서에 등장하는 역사고사(歷史故事)들이 주된 기둥을 이룬다. 특히 은 왕조의 조상이라 여겨지는 왕항과 왕해에 관한 신화는 사건의 구성이 다양하고 등장인물의 성격이 뚜렷하다. 이를 볼 때, 은 민족 초기의 짜임새 있는 민족 서사시로 파악 할 수도 있다.

주진편(周秦篇) - 중국의 역사 시대로 파악되는 주나라와 진나라의 이야기이다.

중국 신화에는 수많은 인물이 등장한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盤古 - 천지창조의 신
2. 女媧 - 인간을 창조한 신
3. 伏羲 - 포학과 문자를 만든 신
4. 神農 - 농업과 상업과 의학의 신으로 염제를 지칭하기도 함
5. 皇帝 - '황천상제'라는 의미로서 황색의 제왕을 말함
6. 蚩尤 - 동의 머리와 철의 이마를 가진 신
7. 帝俊 - 태양과 달의 신
1. 堯帝, 舜帝 - 전설적인 황제
8. 后羿 - 아홉 개의 태양을 쏘 활의 신
9. 西王母 - 생명과 죽음을 관장하는 여신이며 미와 사랑의 여신이기도 함

이렇듯 중국인들에게 신화는 인간화된 신들의 천지창조와 문명창조 설화라고 할 수 있다.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신의 영역에 속하지 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의 천주교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당의 신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올림포스의 열두 명의 신과 유사하다. 다만 신들의 세계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2. 몽골족과 漢族 신화의 내용

신화는 일반적으로 깊이 있는 사고를 내포하면서, 자연과의 강한 투쟁 의지, 민중을 위해 폐해를 제거하는 용감한 희생정신과 고상한 정절, 불굴의 반항정신 등은 후대 문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문학과 신화라는 것의 의미를 국가나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어 인류의 보편적인 개념과 사유형태로 생각하고 논의의 실마리를 풀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일찍이 여러 학자들이 신화를 천지개벽신화, 자연현상에 관한 신화, 만물기원 신화, 신이나 민족의 영웅에 관한 신화, 지하세계에 관한 신화 등으로 상세하게 분류하였다. 본고는 여러 가지 분류법들을 참고하여 몽골과 漢族 신화를 내용에 따라 주제에 따른 분류와 토템과 관련된 분류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1. 주제에 따른 분류

① 창세 신화

대부분의 민족들은 우주와 천지 만물의 창조에 관한 고사인 창세신화를 갖고 있다. 세계와 인류가 어떻게 탄생했고 존재하기 시작했는지를 다루는 이러한 창세신화는 태초에 일어난 원초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 창세신화는 태초에 천지가 분리되지 않은 混沌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天地開闢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창세신화에는 인간에 대한 창조가 곁들여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는 창세신화와 더불어 인간 창조신화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몽골의 창세신화를 살펴보겠다.

몽골 소수민족 부랴트 서사시 첫 머리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 | |
|-------------------|--------------|
| gazar ekh deedyn | 대지가 |
| zambaraagui udude | 아직 무질서하던 시기에 |
| galab ekhe tubin | 이 세상이 |
| buteegui udyde | 아직 이루어지기 전에 |

이 시구는 우주가 형성되기 이전, 즉 이 세상과 대지가 아직 생겨나지 않은 채 혼돈의 상태에 있었음을 묘사하고 있다. 각종 신앙 관련 자료에 처음 이 세상의 상황이 일부 애매모호하게 기술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먼 옛날 몽골인들은 하늘과 땅이 연속된 무질서한 어떤 것(천지혼합 또는 혼돈 상태)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위에서 언급한 서사시에는 그러한 혼돈 상태에서 어떻게 하여 이 세상이 생겨났는가를 묘사한 대목이 나온다.

| | |
|-------------------------|-------------|
| under duuliim tengeriin | 높고 높은 하늘이 |
| unyaar tatan baikhadaa | 안개로 덮여 있을 때 |
| ulgen unseg daidyn | 넓고 넓은 대지가 |

위의 시구는 혼돈에서 하늘과 대지가 분리된 상태로의 이행(천지개벽)을 “위에 안개가 끼고, 아래에 흙먼지가 덮여 있는 상태”로 설명하고 있다.

몽골 신화에서는 태초에 이 세상은 시작도 끝도 없는 거대한 물바다였다는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 물바다 이야기는 거의 모든 신화에 나오는데, 異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태초에 혼돈의 물바다에서 질서정연한 세상이 형성될 때를 즈음하여 “가볍고 맑은 것은 위로 올라가고, 무겁고 탁한 것은 아래로 가라앉아”⁵⁾ 하늘과 땅, 즉 천지가 개벽했다는 뜻이다. 하늘과 땅이 나뉘고 분리되면서 위에는 가볍고 맑은 영역인 하늘로 이루어지고, 아래에는 무겁고 탁한 기반인 땅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늘 아래와 땅 위에 새로운 공간이 생겨나게 된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몽골족 역시 오랜 모계제 사회를 지나왔다. 이를 반영하는 신화를 몽골 대지 어머니 신화에서 엿볼 수 있다.

에투겐 에흐(대지의 어머니)는 이러한 사고와 관련이 있는 신화이다. 「몽골비사」에 따르면, 인간에게 풍요로움과 이로움과 복락을 가져다 주는 대지는 “주름진(흙 있는) 대지” 또는 “젓빛(갈색)대지”이다.⁶⁾ 「알탄 뎀테르Altan devter」에서는 이를 젓빛 “대지의 어머니”⁷⁾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고대 몽골인들이 대지를 어머니로 묘사하는 이유는 대지가 자연에 존재하는 만물에 생명을 부여하고 번식시키는 한편, 그들을 자라나고 꽃피우게 하는 신비로운 능력 때문일 것이다.

메대르 여신의 천지창조 (麦德尔女神开天辟地)

아주 오랜 옛날 하늘이 생겨나고 땅이 형성되며, 사람이 탄생하고, 말이 새끼를 낳고, 만물이 번식하고자 할 때, 온 세상에 한 차례 가혹한 시련이 찾아와 천

5) Tserensodnom , 《MONGOL ARDIIN ULGER》 2001, 27-95쪽

6) 《몽골비사》 246 쪽

7) Mostaert , 1962, 194쪽

지가 뒤집히고, 해일이 일어 우주의 모든 생명을 집어삼켰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를 시점에 메대르 여신은 빛나는 백색 신마에 올라타고, 三千色 세계를 시찰하러 왔다. 파란색 바다로 뒤덮인 세상 속에서 수미보산의 산 정상만이 어렴풋이 보일 정도였다. 수미보산은 원래 대지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하늘에 연결된 계단과도 같아 현재 산의 산꼭대기는 하늘 안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산의 대부분은 파란색 운무에 가려져있다. 메대르 여신은 수미보산 정상에 또 하나의 동굴이 있고, 그곳에 몇몇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곳 사람들의 키는 반尺이 안 되었고, 말 또한 토끼만한 크기였다. 이른 아침에 낡은 아이는 저녁이면 말을 타고 불을 날랐고, 수미산 동굴로 왔다갔다 분주하게 움직였다.

메대르 여신은 백색신마를 타고, 파란색 수면 위를 내달렸다. 신마의 네 발굽이 수면과 마주하자 눈부신 불꽃이 튀었다. 먼지와 흙은 불에 탄 후 재로 변했고, 수면위로 흩뿌려 졌다. 이후 재는 금세 두꺼워질 정도로 쌓였고, 점차 끝이 보이지 않는 대지로 만들어졌다. 대지는 수면을 누르며 아래로 가라앉았고, 하늘과 땅이 서서히 분리되기 시작했다.

대지가 생겨났다. 하나의 거대하고 평평한 대지였다. 하지만 물위에 떠있기 때문에 줄곧 이래저래 흔들렸다. 메대르 여신은 한 마리의 큰 거북신을 물 아래로 보내, 대지를 받치도록 하여 자리를 지키도록 했다. 가끔씩 거북신이 너무 피곤해서 허리와 발을 뻗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메대르 여신의 말의 발굽은 큰 불을 일으켜서, 파란색 바다를 끊임없이 증발시켰다. 이 수증기는 천지사이에서 오고가며 구름이 되었다. 말발굽이 물을 건드려 생긴 불꽃들은 하늘로 솟구쳐 올라 많은 별이 되었다.

메대르 여신은 수미보산의 작고 왜소한 사람들을 가없이 여겨, 남신과 여신을 보내 매일 그들에게 빛을 제공했다. 남신은 낮의 일을 도맡아하며, 열과 빨간 빛을 내뿜었는데, 이것이 바로 태양이다. 여신은 저녁 일을 도맡아하며, 백색 빛을 내뿜었는데 이것이 바로 달이다. 두 신은 매일 메대르 여신이 지정한 노선을 따라, 수미산을 한 바퀴 돌았다. 남신이 산 뒤로 넘어 가면 까만 밤이 되고, 여신이 산 앞으로 넘어 오면 낮이 된다. 그들 둘은 서로 결코 마주한 적이 없다.

메대르 여신의 화신은 매년 대지로 세 번 시찰을 나온다. 세 번은 정월15일, 4

월 15일, 7월 15일이다. 이 세 날은 웨이라트 몽골의 명절이며, 사람들은 소나양을 잡아, 제를 지내며, 메대르 여신을 영접하여 대지를 시찰할 수 있게 한다.⁸⁾

다음으로 중국의 창세신화를 살펴보겠다.

중국의 창세 신화 역시 지금의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무의식 단계인 혼돈의 상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세계가 아직 개벽하기 전, 천지가 계란처럼 혼돈의 상태에 있었고, 그 안에 반고가 생겨나 1만 8천 년이 지나 천지가 개벽되었는데, 천양한 것은 위로 올라가서 하늘이 되었고, 무겁고 탁한 것은 땅이 되었다. 반고가 그 안에서 하루에 여러 번 변하며, 그의 지혜와 능력은 하늘보다 높고, 땅은 보다 강했다. 날마다 하늘은 한 길씩 높아졌고, 땅은 날마다 한 길씩 두꺼워졌고, 반고도 날마다 한 길씩 길어졌다. 이렇게 하여 1만8천이 년이 지났고, 하늘은 아주 높이 올라가고, 땅은 아주 깊어졌다. 반고도 아주 커졌다. 천지가 개벽후야 삼황이 출현했다. (世界開闢以前, 天和地混混沌沌地成一團, 像個雞蛋一樣, 盤古就生在這當中。過了一萬八千年, 天地分開了, 輕而清的陽氣上升為天, 重而濁的陰氣下沉為地。盤古在天地中間, 一天中有多次的變化, 他的智慧比天還要高超, 他的能力比地還要強大。天每日昇高一丈, 地每日增厚一丈, 盤古也每日長大一丈。這樣又過了一萬八千年, 天升得非常高, 地沉得非常深, 盤古也長得非常高大。天地開闢了以後, 才出現了世間的三皇)⁹⁾

陰陽이 갈라져서 천지가 되고 천지 사이에 반고가 서 있게 된다. 마치 공(工)자와 같다. 사전을 보면, 공(工)자의 위에 있는 일(一)은 하늘, 아래 일(一)은 땅, 가운데 기둥은 사람이다. 삼(三)자의 상(上), 하(下), 중(中)의 세 획도 마찬가지로 이다. 이렇듯 공(工), 삼(三) 등의 글자는 바로 이러한 창세우주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볍고 맑은 양기가 하늘이 되고 무겁고 탁한 음기가 땅이 되었다는 말은 몽골신화나 중국 한족신화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다.

또한 하늘과 땅이 분리된 처음에는 땅이 작았지만 점점 커져서 지금처럼 크게

8) 본 고사(故事)는 신장(新疆)몽골족 주민들에서 전해진 이야기로서 王松이 中国民间文艺家协会가 발간하는《民间文学》에서 발췌하였다.

9) 《绎史》卷一引《五运历年记》

되었다는 이야기는 몽골신화에도 나오고, 알타이 지방 신화에도 나온다.¹⁰⁾ 반고는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거인이라고 하였는데 사람은 천지의 기둥이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盤古는 이후 어떻게 되었는가?

처음에 반고가 태어났는데, 죽음에 임하자 몸이 변화하였다. 호흡은 바람과 구름이 되었고, 소리는 우레와 번개가 되었다. 왼쪽 눈은 해가 되고, 오른쪽 눈은 달이 되었고, 사지와 오체는 四極과 五嶽이 되었다. 혈액은 강이 되었고, 힘줄과 핏줄은 길이 되었으며, 피부와 살은 논밭이 되었다. 머리카락과 수염은 별이 되고 살갓의 터럭은 초목이 되었으며, 이는 金石이 되었다. 정수는 주옥이 되고, 땀은 흘러 비와 이슬이 되었다. 몸에 있는 여러 벌레는 바람에 감응하여 못 백성으로 변화하였다.(首生盤古, 垂死化身, 氣成風雲, 聲爲雷霆, 左眼爲日, 右眼爲月, 四肢五體爲四極五嶽, 血液爲江河, 筋骨爲地理, 肌肉爲田土, 髮髭爲星辰, 皮毛爲草木, 齒骨爲金玉, 精髓爲珠石, 汗流爲雨澤, 身之諸蟲, 因風所感, 化爲黎民)¹¹⁾

반고의 성장과 사망에 관한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은 천지만물의 근본이 하나라는 뜻이다. 이러한 관념은 이후 전적에서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

신화 연구자들은 이런 유형의 신화를 ‘거인화생형(巨人化生型)신화’라고 말한다. 우주거인이 죽어 세상 만물이 생겨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신화를 일컫는 용어로, 씨앗이 땅에 떨어져 새로운 곡식이 자라나는 것처럼 세상 만물도 우주거인이 죽어 거기에서 생겨났다고 보는 것이다.¹²⁾

진흙으로 첫 번째 인간을 빚어 만들었다고 하는 신화 이야기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인간 역시 우주와 자연계의 구성 물질인 흙과 물, 그리고 바람 등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사고가 인류 창조신화에 내포되어 있다.

동양의 고등 철학인 불법에서 인간과 자연, 그리고 우주는 공통적으로 지수화풍공(地水火風空)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사상과도 일면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¹³⁾

10) 박시인 《알타이 神話》청노루, 1994, 37쪽 참조

11) <五運歷年紀>《釋史》卷1.

12) 김선자 《중국 신화 이야기》아카넷, 2004년 21쪽 참조

몽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국 한족 역시 오랜 모계사회를 지나왔다. 《說文解字》를 보면, “媧, 古之神聖女, 化萬物者也”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나오는 ‘媧’는 女媧라고도 부른다. 이는 고대 모계제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 女媧의 창조적 욕구, 타고난 변형 능력은 확실히 大地母 원형 속에 여성의 변형 특성을 가리고 있다.

인류의 탄생과 죽음은 최초의 인간들에게 있어 감당하기 어려운 크나큰 사건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생겨난 것이 바로 여와가 진흙으로 인간을 빚었다든가 복희와 여와가 부부가 되어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든가 하는 이야기들이다.

② 영웅 신화

영웅 신화는 도덕적 행위의 체계를 이루는 핵심적인 구성 요소이다. 세계 각국의 신화에 각각 그들의 대표적인 영웅들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듯이 중국과 몽골신화에 있어서도 영웅 신화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인들이 그들 역사의 시작이라고 여기는 黃帝와 炎帝, 몽골인들이 그들 역사의 시작 칭기스 칸과 당덕바타르 등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들이 신화적 인물이 역사화된 것인지, 아니면 역사적 인물이 신화화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漢族과 몽골族 영웅 신화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신화가 있다.

우선 몽골의 영웅신화를 살펴보겠다.

1. 태양을 쏜 영웅신화 (Erkhii mergen)

먼 옛날에 일곱 개의 해가 나타나 세상에 온통 지독한 가뭄이 찾아온 적이 있었다. 땅은 벌겁게 달아오르고, 냇물과 강물은 바닥을 드러내고, 지상의 온갖 식물과 나무들은 말라비틀어지고, 사람들 또한 지독한 더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며, 말을 비롯한 가축들은 허기와 갈증에 시달려 살아갈 수 없었다. 어느 마을에 Erkhii mergen(에르히 메르겐)이라는 유능한 명수사가 있었다. 그는 눈

13) 신화 아카데미 연구 총서 《세계의 창조신화》동방미디어, 2001년

에 보이는 어떤 것이든 명중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가서 하늘에 떠 있는 일곱 개의 해를 없애 달라고 간청했다. 명사수 Erkhii mergen은 사람들의 부탁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는 일곱 개의 해를 화살 일곱 개로 맞추겠다고 하며, 만약 일곱 개의 해를 다 쏘지 못하면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킁킁한 굴에서 사는 타르박¹⁴⁾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하여 동쪽에서 서쪽까지 하늘에 길게 늘어선 일곱 개의 해를 향해 화살을 쏘기 시작했다. 그가 여섯 개의 해를 떨어뜨리고, 막 일곱 번째의 해를 향해 화살을 겨누고 숨을 고르고 있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제비가 끼어들어 해를 가로막아 버렸다. 시위를 떠난 화살은 마지막 하나 남은 해를 맞추지 못하고 그 대신 제비의 꼬리를 맞추었다. 그 때문에 황금제비의 꼬리는 두 갈래가 되었다고 한다. Erkhii mergen의 화살을 피한 마지막 해는 재빨리 서쪽 산 뒤로 숨어 버렸다. Erkhii mergen 명사수는 제비가 자신의 일을 방해했기 때문에, 매처럼 빠른 자신의 얼룩말에게 제비를 쫓아가 죽이고 오라고 했다.

그러자 말이 주인에게 다짐했다.

“맹세컨대 내가 만약 새벽까지 제비를 따라잡지 못하면, 내 다리를 자르고 외딴 곳에 버려도 좋습니다. 그러면 나는 안장을 찬 말(승용마)이기를 그만두고, 굵이굽이 구릉진 곳에서 외롭게 살아가겠습니다.”

얼룩말이 제비를 쫓아 붙잡으려 했지만 제비는 도망갔다. 그러다가 결국 새벽이 밝아왔다. 화가 난 Erkhii mergen은 얼룩말의 앞 다리 두 개를 잘라서 외딴 곳에 버렸다. 그 말은 얼룩 망아지가 되었다. 얼룩 망아지의 앞 두 다리가 짧은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제비가 황혼녘에 말 탄 사람의 앞뒤를 마치 조롱하는 것처럼 빙빙 도는 것도 그 때문이다.¹⁵⁾

Erkhii mergen은 맹세에 따라, 엄지손가락을 잘라 버리고, 킁킁한 굴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타르박의 발톱의 네 개인 것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또한 Erkhii mergen 명사수는 자신이 타르박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활로

14) 타르박(tarvaga): 영어로 marmot 로 번역되는데 몽골, 시베리아 초원에 서식하는 설치류 동물로서 땅굴에서 산다. 타르박이 사냥은《몽골비사》에 등장할 정도로 그 역사가 오래 되었다. 칭기스 칸이 아버지를 여의고 일가가 동쪽으로부터 버림받아 고난의 시절을 보낼 때, 타르박을 잡아먹고 연맹했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몽골비사》제89절 참조.

15) TSERENSODNOM 《MONGOL ARDIIN DOMOG》2001

해를 맞추어 떨어뜨리려고 아침과 저녁에 해가 뜨고 질 때면 동굴 밖으로 나온다. 한편 하늘에 남은 해가 Erkhii mergen을 피해 산 지편으로 숨은 다음부터 이 세상에는 낮과 밤이 교대하게 되었다고 한다.

2. 악귀를 물리친 아바이 게세르 영웅신화

아타오란을 필두로 한 동천의 신들이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떨어지고 난 후 하늘과 땅 사이에서는 참기 어려운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다. 동천 신들이 품어대는 악귀들 때문이었다. 이에 서천의 신들은 악귀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며 아바이 게세르에게 그 임무를 맡기고 땅으로 보냈다. 게세르는 노파의 몸속으로 들어가 그의 아들로 태어나 악귀와의 싸움을 시작했다. 흥미로운 것은 게세르가 하늘에서도 원래부터 3세 유아의 모습이었고 땅에서도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활약을 펼친다는 점이다.

결국 게세르는 악귀를 물리치고 땅 위의 왕이 된다. 그리고 고훈과 결혼하여 오쇼르라는 아들을 낳기도 한다. 이제 땅에서의 임무를 다했으므로 하늘에서는 게세르에게 빨리 돌아오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이에 게세르는 마지막 송별연을 펼쳤는데 이때 그만 술독에 빠져 하늘과 약속한 날을 9일이나 어기고 말았다. 9일 후 하늘나라로 간 게세르는 크게 꾸지람을 들은 후 다시 내려올 때의 모습인 3세의 아이로 돌아왔다고 한다.¹⁶⁾

3. 영웅 Dandogbaatar (당덕바타르)

아주 오랜 옛날, 초원에 두 명의 왕이 있었다. 서쪽의 왕은 Argalburen(아라길부른)이고, 동쪽의 왕은 Urabaatar(오라바타르) 이라고 한다. Urabaatar(오라바타르) 왕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Dandogbaatar(당덕바타르) 이다. 왕은 아들이 18세가 되었을 무렵, 그에게 말 몇 필을 주며 나가서 세상 구경을 하도록 했다. 당덕바타르의 곁에는 말을 돌보는 난쟁이 노인이 한 명 있는데, 머리는 소만큼 크고, 몸집은 팔뚝만큼이나 짧았다. 어느 날 이른 아침, 노인이 급하게 당덕바타르를 찾아왔다.

“초원의 새들도 아직 깨지 않았는데, 어째서 이리 일찍 나를 찾아 왔느냐?”

16) TSERENSODNOM 《MONGOL ARDIIN DOMOG》2001

당덕바타르이 언짢아하며 물었다.

“아라길부른 왕께서 서쪽에서 나담 축제를 열어, 말달리기, 활쏘기, 씨름 등을 겨루게 한답니다. 참가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럼 어서 가서 나의 말을 몰아, 나의 부친께 물어보시오!”

노인은 오라바타르 왕을 알현하고 말했다.

“당덕바타르이 나담 대회에 참가해야 할 듯합니다. 그에게 70개의 사슴뿔을 재료로 하여 만든 활을 주고, 风海驪马를 몰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떠신지요? 그 말은 천하의 명마입니다. 그 말을 몬다면 당덕바타르는 초원의 영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라바타르 왕은 노인의 말에 동의했고, 그리하여 당덕바타르는 활을 챙기고, 명마를 몰아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한참 길을 떠나왔을 무렵 그는 어느 한 몽골 게르 앞에 다다랐다. 당덕바타르는 배가 많이 고파, 말에서 내려 게르 안으로 들어섰다. 안에는 한 명의 노파가 앉아 있었다.

"어서 오세요, 어디까지 가시는 길이시요?"

"저는 아라길부른 왕이 개최하는 나담대회에 참가하러 가는 길입니다. 많이 시장하군요. 여기서 뭐 좀 먹을 수 있겠습니까?"

노파는 칠십 명이 겨우 이동할 수 있는 큰 그릇에 당덕바타르가 먹을 수 있도록 볶은 쌀을 담아 주었다. 이에 당덕바타르는 순식간에 그릇을 비워버렸다. 노파가 놀라며 말했다.

“이 정도 양은 12개 머리를 가진 아귀나 다 먹을 수 있는 양인데, 어떻게 다 먹을 수 있었습니까?”

이때 노인이 들어오며 물었다.

“당덕바타르, 배는 불렀습니까?”

“잠시 요기만 했을 뿐이지요.”

“그럼 제가 낙타 한 마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은 낙타 한 마리를 잡고, 쌀 두 말의 밥을 지었다. 당덕바타르는 역시 순식간에 다 먹어 치웠다. 노인은 놀라며 말했다.

“스물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아귀 정도 되어야 다 먹을 수 있는 이 많은 양을 어

떻게 다 먹을 수가 있나요.”

당덕바타르는 노인과 노파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길을 재촉했다.

곧 목적지에 다다랐을 무렵, 당덕바타르는 자신을 한 명의 걸인과도 같이 변장하고, 명마 역시 이제 2년이 지난 어린 말과 같이 꾸몄다. 그리고는 아라길부른 왕의 게르 앞까지 다가갔다. 사람들이 굶시렁거렸다.

“이러한 꼴을 하고서 감히 나담 대회에 참가하려 한다.”

당덕바타르는 말에서 내려, 목에 힘을 잔뜩 주며 말고삐를 왕의 은으로 된 말뚝에 걸었다. 그러자 왕의 하녀가 말했다.

“위대하신 Temurbishrel(테무르비시렐)의 백마도 감히 이곳에 세우지 못하는 데, 아직 숨털도 다 빠지지 않은 어린 말을 여기에 세우다니? 가당키나 한가?”

당덕바타르는 "말뚝은 말을 세우라고 박아 놓은 것 아닌가?"라고 말하며 아랑곳하지 않고 왕의 게르 안으로 들어갔다.

왕의 딸인 오덕마 공주가 마중 나왔다. 그녀는 당덕바타르의 담력에 감탄하여 금으로 된 사발을 꺼내 물을 따랐다. 그리고 하녀를 시켜 말을 산책시키게 했다.

당덕바타르이 말했다.

“나의 말을 왕의 말과 함께 두시오.”

하녀는 마음속으로 "흥, 왕의 말이 너의 말을 물어 죽이고 말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녀가 뛰쳐 들어와 황급히 "어서 가서 당신의 어린 말을 보세요, 왕의 말을 물어 죽여 버렸어요."라고 말했다. 당덕바타르는 이 말을 듣고서 호방하게 한 번 웃었다.

말달리기 경기가 시작되었다. 당덕바타르이 의복을 갈아입자, 용맹스러운 젊은이로 변했고, 2년 된 어린 말도 세상에 없던 명마가 되었다. 당덕바타르가 하녀를 말에 올라타게 하며, 말 등에 두 마대의 모래를 실었다. 그가 하녀에게 말했다.

“12개 머리의 아귀의 홍마가 서쪽에서 달려 나갈 때 첫 번째 마대를 찢어 훌뿌리시오. 22개 머리의 아귀의 흑마가 동쪽에서 달려 나갈 때 두 번째 마대를 찢어 훌뿌리시오.”

하녀가 몰고 있는 명마가 선두에서 달렸다. 그녀는 홍마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는 첫 번째 마대를 풀어헤쳤다. 모래가 흘러나와 서쪽에서 하나의 산의 되었고,

홍마가 떨어져 죽었다. 또 흑마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는 두 번째 마대를 풀어헤쳤다. 이에 동쪽에 산이 하나 생기더니, 흑마가 떨어져 죽었다.

아라길부른 왕, 12개 머리의 아귀, 22개 머리의 아귀, 그리고 당덕바타르는 멀리서 먼지가 이는 것을 지켜보고, 말들이 돌아오는 것임을 알았다.

“나의 홍마겠지.” 12개 머리의 아귀가 말했다.

“나의 흑마일거야.” 22개 머리의 아귀가 말했다.

“이는 나의 명마이다. 너희들 중 누구의 말이 이런 모래먼지를 일으키며 달릴 수 있단 말인가?”

정말로 당덕바타르의 명마가 달려 들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하녀가 말의 고삐를 잡아 멈추지 못하자, 말은 계속 앞으로 달려 송부른산 앞까지 다다랐다. 당덕바타르는 힘차게 내달려 한 발로 송부른 산을 내딛고 한 손으로는 말의 고삐를 잡자, 큰 산이 휘청 이더니 말이 멈춰섰다.

씨름 경기가 시작되었다. 위대하신 테무르비시렐은 당덕바타르에 의해 몇 장 멀리까지 내던져 졌다. 12개 머리의 아귀는 몇 리 밖까지 내팽개쳐 졌고, 22개 머리의 아귀는 20여리 밖으로 날아갔다. 삼천 명의 씨름 선수 중 어느 하나 당덕바타르를 이기지 못했다.

마지막 경기는 활쏘기였다. 3리 밖에 3개의 금바늘이 놓여있고, 다시 그 3리 밖에는 3개의 은바늘이 놓여있었다. 그리고 다시 그 3리 밖에 한 마리 소만한 바위가 놓여있고, 다시 3리 밖에 한 마리 양만한 하얀 바위가 놓여있다. 하얀 바위 위에는 한 움큼의 장작불이 타고 있다.

위대하신 테무르비시렐이 쏜 화살은 금바늘 아래에 꽂혔다. 12개 머리의 아귀의 화살은 은바늘 아래에 꽂혔다. 22개 머리의 아귀의 화살은 소만한 바위 아래에 꽂혔다.

사람들의 시선은 당덕바타르에 쏠렸다. 그는 70개의 사슴뿔로 만든 활의 시위를 당겼다. 화살은 금바늘과 은바늘의 구멍을 뚫고 날아가, 소만한 바위를 주먹만한 돌 부스러기 하나 남기지 않고 뚫어버렸다. 빨강계 달구어진 화살촉은 하얀 바위 위의 장작불을 뚫고 지나가 훗훗 타올랐다. 왕은 삼백명의 병사를 내보내 불을 끄게 했으나 삼일 밤낮이 지나도록 불을 끄지 못했다. 왕은 하는 수 없이 당덕바타르에게 부탁했다.

“용사여, 자네가 가서 불을 좀 잠재우게나.”

당덕바타르이 성큼 성큼 걸어가, 손가락 두 개를 확하고 움직이더니, 불이 바로 사그라졌다.

당덕바타르은 무적의 영웅이 되었다. 아라길부른 왕은 오덕마 공주를 그에게 시집보냈다. 당덕바타르이 왕에게 말했다.

“저는 집에 좀 가서 준비를 하고 다시 와서 결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덕바타르이 집에 도착했을 때, 10만 말의 무리가 보이지 않았고 게르 역시 보이지 않았다. 횡한 초원 위에는 적색 말 한 마리만이 고개를 들어 울부짖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적색말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12개 머리의 아귀가 와서는 말 무리를 몰아가고, 부모를 잡아갔습니다. 게다가 게르를 모두 불태웠습니다.”

당덕바타르은 적색 말에 올라타고는 “적색 말아, 길을 안내하거라!”라고 외쳤다.

아귀집에 다다랐을 무렵이었다. 당덕바타르은 자신을 거지 소년으로 변장하고, 큰 칼을 작은 칼로 변하게 해서 부츠 속에 끼워 넣었다. 활과 화살은 종이로 변하게 해서 허리춤에 찼다. 적색 말은 2년 된 어린 말로 변했다.

당덕바타르이 게르에 들어섰을 때, 아귀의 모친이 그곳에 앉아 있었다.

“누구 신고? 어디서 온게요?”

“저는 밥을 좀 얻어먹을 수 있을까 합니다. 벌써 몇 일을 굶었습니다.”

“그럼 저쪽으로 가서 직접 먹을 것을 찾아 요기라도 하시게나.”

이때 아귀가 돌아왔다. “혹시 누가 찾아 오지는 않았나요?”하고 물었다.

“어린 거지 아이가 한 명 왔었지.”

“혹시 영웅 당덕바타르가 아니었습니까?”

“네 이놈, 영웅 당덕바타르 여기 있다.”

당덕바타르가 걸어 나왔다. 아귀와 당덕바타르은 삼일 밤낮으로 혈투를 펼쳤다. 초원의 날아다니는 모래가 돌로 변하고, 낮이 없어지고, 밤도 사라졌다. 끝내, 당덕바타르이 승리를 거두고 아귀의 숨통을 끊어 놓아 목을 베었다.

당덕바타르은 자신의 부모를 구해내고, 아귀의 10만 말의 무리와, 자신의 10만 말의 무리를 몰아 고향으로 돌아왔다.

아라길부른 왕은 3천 병마를 보내 당덕바타르를 마중했다. 당덕바타르와 오덕마 공주의 결혼식은 성대하게 3달 동안 계속되었다.

이때부터 초원에는 마귀가 사라졌고, 사람들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영웅 당덕바타르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해져 내려 왔다.¹⁷⁾

4. Loovon (로윈)

예로부터 전하는 말에 따르면, 홍수가 하늘을 덮칠 듯 크게 일어나서, 인간과 들짐승, 날짐승을 모두 집어 삼켰다. 모든 인류가 사라지고 오직 한 명, 로윈이라고 하는 똑똑한 청년만 살아남았다. 그는 홍수가 발생하기 전에 까마귀에게서 미리 듣고, 소를 잡아 소의 가죽으로 물에 떠다닐 수 있는 수단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 화를 면할 수 있었다.

로윈은 외로움을 느껴, 하루는 말뚝으로 세 개의 나무 인형을 만들었다. 하지만 나무인형은 말을 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었다. 그는 살아있는 친구를 찾고 싶었다. 하지만 사방이 고즈넉한데 어디에서 산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는가? 로윈은 추위를 느끼고 뿔감을 주워 불을 지폈다.

연기가 일더니, 공중으로 올라갔고, 천상계의 두 자매를 놀라게 했다. 언니의 이름은 계림 이고, 여동생의 이름은 미림이다. 그들은 몰래 놀러 도망 나온 것이었다. 그들은 홍수 때문에, 땅위의 모든 것이 휩쓸려서, 야생의 양과, 오리, 화미조, 수달만이 살아남았다고 아버지에게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불길이 있다는 것은 분명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땅위에 어째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그들은 연기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레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로윈이가 지핀 불 옆으로 다가갔다. 그를 보니 잘 생긴 젊은이였다.

"저기요, 홍수가 그렇게 크게 났는데, 어떻게 휩쓸리지 않을 수 있었나요?"

그녀들이 묻자 로윈가 대답했다.

"저는 소가죽 주머니에 들어가 둥둥 떠다녔답니다."

그들은 불을 쬐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로윈은 한 손으로는 언니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는 여동생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두 자

17) 中国民间文艺家协会《民间文学》，1984年 第11期

매님, 저와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언니는 동생에게 남으라고 하고, 동생은 언니보고 남으라고 하며 서로 떠넘기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집에 일곱 자매가 있어요, 직접 결정하기 어려우니, 우리 부모에게 한 번 물어 보세요."

로윈은 두 선녀를 따라 천상계로 갔다. 자매는 그를 주방 입구의 큰 항아리에 숨겼다. 그리고 기회를 봐서 아버지에게 구혼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뜻밖에, 하인이 개에게 사료를 먹일 때, 개들끼리 먹이를 다투다가 항아리를 뒤집고 말았다. 로윈은 항아리 밖으로 내동댕이쳐지고 말았다. 하인들은 여태껏 한 번도 지상의 사람을 본적이 없었다. 한 명은 몽둥이로 쳐 죽여야 한다고 하고, 또 한 명은 밧줄로 묶어 걸어야 한다고 했다. 결국, 그들은 로윈을 잡아 그들의 주인에게 데려갔다. 강지神, 그가 바로 두 자매 여신의 아버지이다.

로윈은 강지神에게 자세하게 자신의 처지를 말했다.

"지상에 큰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이 떠내려가고, 저 한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신께서 몇 명의 딸이 있다는 말을 듣고 천상계에 오게 되었습니다. 딸을 저에게 시집보내 저의 반려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신은 인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하지만 로윈은 젊고 영준하여, 먼저 그의 담력과 지혜를 시험해 볼 참이었다. 그가 로윈에게 말했다.

"나에게 일곱 명의 딸이 있네, 한 명 시집보내는 것은 문제도 아니야, 하지만 누구를 시집보낼지는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 그럼 이러자고, 내일 내가 일곱 딸을 모두 불러내도록 하지. 자네가 스스로 잡아보도록 하게, 자네가 누구를 잡으면 바로 그 딸이 당신에게 시집가게 될 걸세."

다음날, 로윈은 강지神이 알려준 궁전에 도착했다. 궁전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자매의 부모이외에는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가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궁전 옆문이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이윽고 사자, 곰, 호랑이, 표범, 이리, 늑대 등 한 무리의 맹수가 들어오더니, 마지막으로 작은 용이 한 마리 들어왔다. 그들은 로윈을 에워쌌다.

로윈은 겁이 나서 몸을 돌렸고, 감히 사자, 곰, 호랑이, 표범, 이리, 늑대에게 손을 댈 수가 없었다. 그들을 잡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로윈이가 작은

용 방향으로 몸을 돌렸을 때, 용이 아주 온순해 보였다. 꼬리도 빛깔이 고와서 그는 곧 멈춰 서서 그쪽으로 다가갔다. 손가락 하나를 내밀어 꼬리에 살짝 손을 댔다 순간 작은 용이 아름다운 처자로 변신했다.

강지神은 로윈이가 玄姑娘 昌翁吉吉米를 잡은 것을 보고 말했다.
"젊은이, 운이 좋구먼, 하지만 지금 당장 딸을 너에게 내줄 수는 없네, 반드시 몇 가지 일을 해결해야 비로소 딸 玄를 시집보낼 수 있어."

강지 神는 로윈에게 하루 안에 서산에 가서 아홉 개의 화산 땅을 베어오라고 했다. 로윈은 근심에 잠겼다. 밤에 잠도 안자고 생각해봐도, 한 명이 하루 안에 밤낮 없이 일해도 한 개의 화산 땅을 베어 내가 힘든데, 아홉 개는 두 말할 필요도 없었다. 이 때, 갑자기 문 밖에서 누군가 그를 불렀다. 玄姑娘이었다. 그녀는 문틈사이로 그에게 속삭였다.

"걱정 마세요. 내일, 부모님에게 굽이칼을 아홉 개 달라고 해서 그것을 쬐어지고 산으로 가세요. 그곳에서 굽이칼을 가지고 아홉 그루의 나무에 각각 한 번씩만 흠집을 내고는 굽이칼을 나무아래에 두세요, 그리고 당신은 다른 숲 에 가서 낮잠을 한 번 자면 되요. 때가 되면 저절로 아홉 개 화산 땅이 베어져 있을 거예요."

로윈은 玄姑娘이 말한 대로 했다. 그러자 아홉 개의 화산 땅이 정말 하루 안에 베어졌다. 玄姑娘의 부모는 또 로윈에게 하루 안에 아홉 개의 베어 낸 곳을 모두 불태워버리라고 했다. 로윈은 玄姑娘이가르쳐준 대로, 각 땅마다 하나의 불씨를 넣었더니, 하루 안에 모두 타버렸다. 玄姑娘의 부모는 로윈에게 하루 안에 아홉 개의 태워낸 지형을 모두 파내버리라고 했다. 로윈은 玄姑娘이 가르쳐준 대로, 각각의 땅속에 하나의 호미를 놔두었더니, 아홉 개의 땅을 하루 안에 모두 파냈다.

강지 神부부는 다시 로윈을 불러들여 말했다.

"내 동쪽 산 아홉 개 땅에 심은 옥수수가 모두 익었으니, 네가 가서 한 알도 빠짐없이 거두어 들여라."

로윈은 玄姑娘이 말한 대로 아홉 개의 광주리를 메고 동쪽 산에 다다랐다. 각 땅에서 옥수수 한 알씩을 떼어내서 각각의 광주리에 담았다. 오후에 그는 강지 神에게 옥수수를 건네주었다. 신은 눈을 감은 채 말했다.

“나의 옥수수의 알은 모두 10만 개 인데, 네가 수확한 것은 단지 9만9천9십9개로 하나가 부족하다.”

다음날 로윈은 자작나무 숲에서 한 마리 하얀 산비둘기를 잡고 모이주머니를 찢어, 비둘기가 훔쳐 먹은 옥수수 알갱이를 찾았다. 이때부터 흰 산비둘기의 울음소리가

‘뚜우뚜우’로 변하게 되었는데, 이는 몽골어로 ‘후회’를 뜻한다.

강지神 이 또 로윈을 불러내어 남쪽 산의 아홉 개 땅에 심은 귀리를 수확하도록 했다. 로윈은 玄姑娘이 말한 대로 9개의 낫을 남쪽 산에 갔다. 각 각의 땅에서 낫으로 귀리를 한 번 베고는 그 칼을 그곳에 놔두었다. 오후가 되자 그는 강지神 에게 귀리를 건네 줄 수 있었다. 신선은 두 눈을 버쩍 뜨고 말했다.

“나의 귀리는 십만 알인데, 네가 수확한 것은 9만9천9십9개 반 뿐이구나, 아직 반 알이 모자란다.”

다음날 로윈은 남쪽 산의 다섯 번째 땅에 가서, 돌 아래에서 검은 색 개미 한 마리를 잡았다. 개미의 배 속에서 반 알의 귀리를 꺼내었다. 이때부터 토실한 검은 색 개미의 허리가 잘록하게 변했다고 한다.

어려운 문제를 모두 해결 하고 나서야 비로소 로윈은 강지神의 초대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玄姑娘이 난처한 듯 말했다.

“가연은 그대, 정말 바보군요, 어째서 사자나 꿈을 만지지 않았나요? 그들은 나의 큰 언니와 둘째 언니랍니다. 집안을 관리하는 능력이 좋아요. 두 언니는 털실한 멍치로 9가지 색깔의 옷을 짤 수 있지만 저는 3가지 밖에 못해요. 두 언니는 9종류의 주먹밥을 만들 수 있지만, 저는 3종류 밖에 만들지 못해요.”

그러자 로윈이가 대답했다.

“당신을 힘들게 했군요, 玄姑娘, 9종류의 옷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삼베정도만 짤 수 있다면 됩니다. 9종류의 주먹밥을 만들지 못해도 괜찮아요. 둥글게만 만들 수 있으면 되요, 앞으로 조금씩 배우게 될 거예요.”

강지神가 로윈에게 말했다.

“똑똑한 젊은이, 나는 벨은 말은 지키는 사람일세, 내가 사랑하는 딸을 자네에게 내어줌세, 살림살이로 무엇이 필요한지 원 없이 말해 보게.”

“저는 금은보화는 필요 없고, 단지 곡식의 씨앗을 원합니다.”

“어떤 곡식 씨앗도 모두 주겠네, 하지만 園根 씨앗은 힘들다.”

么姑娘은 부모의 명을 받들어, 양 손의 열 손가락으로, 10개의 씨앗 창고에서 각각 씨앗을 받아 손톱사이에 보관 했다.

강지 神은 “또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물었다.

“저는 능라주단이나, 진주, 석영은 필요로 하지 않고, 말, 소, 양, 닭, 개, 돼지만 이 필요합니다.”

“소, 양, 닭, 개, 돼지는 모두 줄 수 있으나, 말은 힘들다.”

로윈은 么姑娘과 함께 소, 양, 돼지를 끌고 닭, 개를 몰며, 부모님께 작별인사를 하고 지상으로 내려왔다. 돌은 돌과, 흙, 나무, 풀을 증인으로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한가로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로윈은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 부모님은 참 독특하구려, 園根 씨앗 주는 것을 아까워하다니.”

창길미는 왼쪽으로 늘어뜨린 변발을 쓸어 올리며 말했다.

“園根 씨앗은 천상계의 보물중의 보물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도 내어 줄 수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뭔지 알아 맞춰 볼래요?”

로윈이가 살펴보니 9개의 금색 園根 씨앗이었다.

“우리에게 말은 왜 주지 않는 것이요?”

창길미는 이번에는 오른쪽 변발을 뒤로 젖히며 “말은 여섯 가축중에서 으뜸이에요. 평범한 사람에게는 주지 않아요. 이것이 뭔지 알아 맞춰 볼래요?”라고 말했다.

하나의 계란 알처럼 생긴 것이었다. 로윈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말은 알에서 부화하는 것이랍니다. 이 말의 알은 큰 언니와 둘째 언니가 부모님의 보물창고에서 몰래 훔쳐서 우리에게 준 것이에요.”

어미 말이 없는데 무슨 수로 이 알을 부화시키지? 둘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동해의 물고기를 찾으러 가서 그에게 말을 부화시켜 달라고 부탁하기로 했다. 물고기는 말의 알을 부화시킬 줄 모르지만, 그들은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어,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꼬리를 잘 못 놀려 말의 알을 깨고 말았다. 그러자 알에서 머리도 없고, 발, 꼬리도 없는 몸뚱이가 떼굴떼굴 굴러 나왔다. 몸의 형체

에 목 밖에 형성 되지 않아, 전혀 말처럼 생기지 않았다.

그들은 물통을 하나 찾아와 목 위에 붙이자 곧 머리가 되었다. 껍질 벗긴 네가닥의 삼대를 붙였더니 곧 말다리가 되었고, 삼대 끈을 찾아와 붙였더니 말꼬리가 되었다. 부부가 어흥 하고 소리를 치자, 말이 일어서기 시작했다. 말을 좀 움직여 보려 했는데, 말이 몸을 몇 번 흔들더니, 네 다리는 움직이지 못했다. 부부가 힘껏 말다리를 들어 보니 다리가 너무 얇고 가늘었다. 그래서 진흙을 가져다 붙였다. 무엇으로 말발굽을 만들지? 그들은 여기저기 적당한 것을 찾아 봤지만 찾을 수 없었다. 이때 로윈이의 재치가 발동했다. 나무 사발을 뒤집어 달아봤는데 효과가 좋았다. 나무 사발이 말발굽으로 제격이었다. 이에 나머지 세 다리에도 나무 사발을 달았더니, 말이 순간 “따그닥 따그닥”거리며 뛰기 시작했다.

로윈 부부에게 “말이 생겼다.”는 소식이 천상계에 전해졌다. 장인, 장모는 화를 냈고, 강지 神는 “말이 생겼으니, 타는 것에 사용해야지 말고기를 먹어서는 안된다.”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하인을 시켜 로윈에게 주었던 소, 양, 돼지, 닭, 개를 모두 불러들이게 했다.

로윈 부부가 울타리에서 기르고 있던 말을 할 줄 아는 똑똑한 소, 양, 돼지, 닭, 개는 천상계의 주인이 부르자, 모두 날아가 버렸다. 그래서 오직 말을 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가축만 지상에 남았다. 지금 사람들이 기르는 가축은 모두 어리석어 하늘로 날아가지 않은 가축의 후손이라고 한다.

신은 또 로윈이가 園根을 심었다는 말을 듣고는 “나는 로윈의 메밀에 꽃이 피지 않게 하고, 옥수수가 인형이 되고(영원히 무르익지 않음), 園根이 빨감이 되고, 매해 개떡 같은 것만 먹게 하겠다.”라고 저주했다.

그런데 메밀이나 옥수수, 園根은 저주를 잘 못 알아듣고 말았다. 메밀은 “꽃을 피우지 않다”를 “하얀색 꽃을 피우다”로, 옥수수는 “인형이 되다”를 “인형을 업다”로, 園根은 “빨감이 되다”를 “시큼한 음식”으로 로윈은 “개떡이나 먹어라”를 “만두만 먹어라”로 해석한 것이었다. 그래서 메밀은 하얀 꽃을 피웠고, 옥수수는 둥글게 영글었으며, 園根은 시큼한 음식의 재료가 되었고, 몽골사람은 만두 먹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한다.¹⁸⁾

18) 《民間文學》，中國民間文藝家協會，1987年 第7期

다음은 중국 영웅신화이다.

1. 가뭄을 퇴치한羿

『山海經』, 「大荒南經」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동해의 밖, 甘水 사이에 義和國이 있다. 희화라는 여자가 있어 지금 甘淵에서 해를 목욕시키고 있다. 희화는 帝俊의 아내로 10개의 해를 낳았다.

(東南海之外, 水之門, 義和之國, 有女子名曰義和, 方日浴於甘淵. 義和者, 帝俊之妻, 生十日.)

같은 책 「大荒西經」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어떤 여자가 지금 달을 목욕시키고 있다. 帝俊의 아내인 상희가 달을 열두 개를 낳아 여기에서 처음으로 그것들을 목욕시켰다.

(有子方浴月. 帝俊妻常羲, 生月十有二, 此始浴之)

《山海經》, 「大荒南經」에 나오는 帝俊의 아들들인 태양은 원래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태양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태양은 10개나 되었지만 사람들은 하나의 태양만 보고 살았다. 하지만 그런 생활에 싫증 난 아들들은 부모의 명을 어기고 어느 날 다 함께 떠올라 자기들 마음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드넓은 하늘에서 마음껏 자유를 만끽하기 시작했다. 열 개의 태양이 동시에 떠오르자 이에 인해 사람들은 고통 받았다.¹⁹⁾

바로 여기에서 羿가 등장한다. 羿가 열 개의 태양 중 아홉 개를 쏘아 떨어뜨려 백성들의 고통을 없애게 된 것이다. 『淮南子』, 「本經訓」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요 임금 때가 되자 열 개의 태양이 동시에 나와 곡물을 태우고 초목을 죽여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었다. 알유, 착지, 구영, 대풍, 봉희, 수사가 모두 백성들에게 해를 끼쳤다. 요는 곧 예를 시켜 착지를 수화의 들에서 죽이고, 구영을 흉수가에서 죽이며, 대풍을 청구의 못에서 격파하였다. 위로 열 개의 태양을 쏘고, 아래로 알유를 죽이며, 수사를 동정호에서 자르고, 봉희를 상림에서 사로잡았다. 이에 만백성이 모두 기뻐하였다.(逮至堯之時 十日

19) 박정예, 심치열 엮음, 《신화의 세계》.196-201pp. 참고

竝出 焦禾稼 殺草木 而民無所食. 狻猊, 鑿齒, 九嬰, 大風, 封豨, 脩蛇皆爲民害. 堯乃使羿誅
鑿齒於疇華之野, 殺九嬰於凶水之上. 繳大風於青邱之澤. 上射十日而下殺狻猊. 斷脩蛇於洞
庭. 禽封豨於桑林萬民皆喜.²⁰⁾

곡식과 초목을 불태운 열 개의 태양과 괴물들을 제거하여 백성들을 기아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堯임금 시대 羿의 善功을 이야기하고 있다.

가뭄을 퇴치한 羿신화는 몽골과 중국 신화에 射手로 등장한다.

2. 禹의 治水

治水 신화는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중국인들의 소망을 반영해 주는 신화이다. 또한 죽음을 자연현상과 연관지어 변형을 통한 재생을 꿈꾸기도 했는데 그것은 중국 고대신화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변형신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홍수 신화는 다음과 같다.

禹가 홍수를 다스릴 때 일찍이 세 차례나 동백산에 갔지만 폭풍과 천둥이 몰아치고 돌과 나무가 울며, 土伯은 하천을 옹호하고 天老는 병사를 정리하여 공을 세울 수 없었다. 우가 노하여 百靈을 소집하고 夔와 龍에게 명하니, 동백 등 산신들이 머리 숙여 명을 받아들였다. 우는 이에 홍몽씨, 장상씨, 두노씨, 이루씨를 잡아 가두고, 회와의 수신 無支祁를 잡았다. 그는 말을 달 응대하고 江淮의 깊이와 평원과 저지의 원근을 잘 파악하였다. 모습은 원숭이 같고, 코는 납작하고 이마가 높으며, 푸른 몸에 흰 머리, 누런 눈에 흰 이빨을 가졌고, 목을 펴면 백척이 되고 힘은 아홉 마리의 코끼리를 능가하였다. 두드려 치고 날뛰고 질주하는 것이 경쾌하고 신속하므로 오래도록 그의 행동을 듣거나 볼 수는 없었다. 우는 동물에게 명하여 그를 제지하라고 했으나 제압하지 못하였고 오목유에게 명했지만 제압하지 못했다. 이에 경진에게 명하니 능히 제압하였다. 치비·환호·목매·수령·산요·석괴는 몇 천 번이나 분호(奔號)하여 모여 둘러쌌으나 경진은 창을 가지고 쫓아가 목에 큰 사슬을 채우고 코에 금방 울을 달아 회수 남쪽 귀산 밑으로 옮김으로써 회수를 영원히 잔잔히 흘러 바다로 들어가게 하였다. 경진 이후 모두 형상을 그리는 것은 회수의 파도와 풍우의 난을 면하기 위해서다.(禹理水, 三至桐柏山, 驚

20) <淮南子>의 『本經訓』 羿의 射日

風走雷, 石號木鳴, 土伯擁川, 天老肅兵, 功不能興. 禹怒, 召集百靈, 授命夔龍, 桐柏等山君長稽首請命, 禹因囚鴻濛氏, 章商氏, 兜盧氏, 犁婁氏, 乃獲淮渦水神名無支祁, 善應對言語, 辨江淮之淺深, 原隰之遠近, 形若猿猴, 縮鼻高額, 青軀白首, 金目雪牙, 頸伸百尺, 力逾力象, 搏擊騰啖疾奔, 輕利倏忽, 聞視不可久. 禹授之童律, 不能制; 授之烏木由, 不能制; 授之庚辰, 能制. 鷓碑桓胡木魅水靈山祆石怪奔號聚繞, 以數千載, 庚辰以戰, 遂去, 頸鎖大索, 鼻穿金鈴, 徙淮陰之龜山之足下, 俾淮水永安流注海也. 庚辰之後, 皆圖此形者, 免誰濤風雨之難).²¹⁾

이 신화 속에는 풍부한 상상력이 보이는데, 폭풍과 파도를 무지기라는 존재의 행동에 의한 결과로 묘사하고 있으며 치수영웅 우왕이 물속의 괴물 무지기과 싸워 그를 잡아 가둔다는 장면은 고사 속의 가관을 보여 준다.

③. 자연 신화

자연 신화를 대체적으로 인류의 자연현상에 대한 투쟁 신화, 자연현상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신화, 낮과 밤, 태양과 달, 바다에 관한 신화 등 형태로 분류할 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양과 달에 관한 신화이다. 중국 고대 문헌 《楚辭》에 자연 신에 관한 자료들이 많이 들어 있다. 자연신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양과 달에 관한 신화이다.

1. 태양과 달 신화(몽골)

몽골인들이 해와 달을 빛과 광명 또는 부흥과 번영의 상징물로 인식하고 살아왔다. 흉노의 군주 선우가 아침마다 거처에서 나와 해에 배례하고 밤마다 달에 배례했다는 『사기(史記)』의 기록도 그 하나의 사례다.

선우는 아침에 영을 나와 막 떠오르는 해에 절을 하고, 저녁에는 또 달을 보고 절했다.

“岁正月诸长小会单于单庭 而单于朝出营 拜日之始生 昔拜月”²²⁾

21) 李昉 編,《太平廣記》, 권 467, 「아담」, 3845쪽-3846쪽 참조.

22) 『史記』, 권110, 「匈奴列傳」, “歲正月諸長小會单于单庭, 而单于朝出营, 拜日之始生, 昔拜月.”

또한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옛날에 하늘의 아들과 대지의 딸이 결혼하여 하늘과 땅이 사돈이 되었다. 대지는 하늘에게 딸의 결혼 예물 명목으로 해와 달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하늘은 요구대로 해와 달을 대지에게 주었다. 그런데 대지가 그것들을 받아서 땅속에 넣고 가두어 버림에 온 세상이 캄캄한 칠흑으로 변하였다. 이에 하늘은 대지에게서 해와 달을 되돌려 받을 방법을 강구했지만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자 하늘은 대지에게 가서 숲속의 메아리와 은빛 물결을 달라고 했다. 대지는 무슨 수를 써도 이 두 가지를 잡아 주지 못했고 해와 달을 되돌려 주었다. 그리하여 밤과 낮 교체하게 되었다고 한다.²³⁾

2. 해와 달 신화(중국)

《山海經》에 의하면 옛날에는 태양이 10개나 있었다고 한다. 1개의 태양이 뜰 때 나머지 9개는 대기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태양이 떠서 하늘을 여행하고 서쪽으로 넘어가고 나면 여행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다음 태양이 떠서 하늘을 여행하고 또 그 다음 태양이 여행하고 이렇게 남은 태양들이 차례로 하늘을 여행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요왕이 천하를 다스릴 때 10개의 태양이 한꺼번에 하늘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었다. 지구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밝아졌고 만물이 다 타버릴 정도로 뜨거워졌다. 그래서 요왕은 활의 명인인羿를 불러 9개의 태양을 쏘아 떨어트리려고 세상은 지금처럼 1개의 태양이 되었다고 한다.

한편 태양이 하늘을 여행할 때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까마귀 등을 타고 움직이기도 하고 여섯 마리의 용이 끄는 마차를 타고 움직이고도 한다고 중국인들은 생각했다. 한편, 어떤 신화에 의하면 그 태양 속에 다리가 세 개 달린 까마귀가 살고 있고 그 상태에서 태양이 여행한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山海經》을 보면 羲和와 마찬가지로 해와 달을 모두 주재했던 鶡에 대한 기록 나온다. 女和月母國이 있다. 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북방을 원이라 하고 거기서 불어오는 바람을 염이라 한다. 그녀는 동북쪽 모퉁이에 살면서 해와 달을

23) T SERENSODNOM 《MONGOL ARDIIN DOMOG》2001

멈추게 하고 서로 섞어서 뜨고 지지 않도록 하며 그 길고 짧음도 다스린다.

④ 기타 신화

1. 빛을 통한 임신

《몽골 비사》에 알란 고아 신화가 나온다.

높은 하늘의 뜻으로 태어난 볼테 치노(푸른 늑대)가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고아 마랄(고운 사슴)이 있었다. 그들은 큰 물을 건너서 오는 강의 근원지인 불간 산 속의 초원에 와서 사는 동안에 바다치한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바다치한의 아들은 고리찰 멀건 이고, 그 아들은 아우잔 보롤, 그 아들은 사리 가자우, 그 아들은 에케 니둔(큰 눈), 그 아들은 썸소치, 그 아들은 갈츄라는 이름이었다.

갈츄의 아들인 본지기다이 멀건의 아내는 몽골진(몽골 고운이)였다. 이 두 사람의 아들 도로골진 바얀은 보록진 고아라는 아내와 보롤다이 소알비라는 하인과 대일마 및 보로라는 두 필의 좋은 말이 있었다. 두와 소골은 이마 한가운데에 눈이 하나 있어서 그 눈으로 1천 리 앞도 내다볼 수 있었다.

어느 날 두와 소골은 동생 도분 멀건과 함께 불간 산으로 올라갔다. 산 위에서 내려다 보니, 저 멀리 시냇가를 따라서 사람들이 오는 것이 보였다.

“저기 오는 사람들 속의 검은 수레 안에 고운 여자가 타고 있다. 아직 시집을 가지 않았으며 네 아내로 만들겠다.” 두와 소골은 이렇게 말하고 도분 멀건을 시켜 가 보도록 했다. 그가 가보니 아주 아름다운 미혼의 여자였는데, 이름은 알란 고아[北美]라고 했다. 골발구진족의 추장인 발구다이 멀건의 딸 발구진 고아와 고리도마도 부족의 귀족 고리랄타이 멀건이 결혼하여 아직 우순(맑은 샘)가에서 살 때에 난 딸이었다. 고리랄타이 멀건은 다른 귀족들과 사이가 나빠져서 그곳에서 사냥을 못하게 되어 불간 산으로 이동하여 그 곳의 영주인 신치 바얀이 다스리는 우량캐의 땅으로 온 것이다.

도분 멀건은 알란 고아와 혼인하여 부누구테와 벌구누테라는 두 아들을 낳았다. 도분 멀건의 형인 두와 소골은 네 아들이 있었는데, 네 아들은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작은 아버지 도분 멀건과 갈라져서 다른 곳에서 살면서 성을 들번(넛)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들번이라는 성의 시조가 되었다.

어느 날 도분 멀건이 도고착이라는 고원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는데, 우량캐족의 사람이 사슴을 잡아서 그 갈비를 불에 굽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고기를 조금 나누어 주시지 않겠소?”

도분 멀건이 이렇게 칭하니 그 사람은 사슴의 간과 배의 살만 남기고 그 나머지 고기를 모두 도분 멀건에게 주었다. 도분 멀건은 사슴의 그 고기를 자기 말에 싣고 가다가 아들을 데리고 가는 가난한 사람을 만났다.

“누구십니까?”

“나는 마릭 바요우다라고 합니다. 그 고기를 나누어 주시면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도분 멀건은 사슴의 다리 하나를 주고, 그 아이를 받아서 머슴으로 삼았다. 이후 도분 멀건은 죽었다. 그러나 알란 고아는 남편이 죽은 후에 또 아들 셋을 낳았다. 이름은 부구하다기, 부하토 살지, 보돈찰 몽각이라고 했다.

어느 날 알란고아가 없을 때 부구네테와 별구네테이가 이 셋 동생의 출생에 대해 의심하는 말을 주고받자 그것을 눈치 채고 알란 고아는 다섯 아들을 모두 불러 앉히고, 화살 하나씩을 주어 부러뜨리라고 하였다. 다들 쉽게 부러뜨렸다. 다음에는 화살 다섯을 묶어 한 단을 만들고 부러뜨리라고 하였더니 아무도 부러뜨리지 못하였다. 그때에 알란 고아는 말하였다.

“별구네테, 부구네테야. 너희들이 내가 나중에 낳은 세 아들이 누구의 아이인가 이상하게 여기는데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이렇게 된 일이다. 밤마다 광채를 일으키는 누런 사람이 천막 꼭대기 하늘구멍에서 내려와 내 배를 만져 주었다. 그 사람의 빛이 내 뱃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다. 그 사람은 나갈 때는 해와 달빛을 따라서 늑대처럼 기어나가더라. 함부로 말을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을 생각해 보면, 이 세 아이는 하느님의 아들임이 분명하다. 이 아이들이 많은 사람의 왕이 되면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되리라.”

알란 고아는 다섯 아들을 가리키며 또 말하였다.

“너희들 다섯은 이 화살과 같다. 하나씩이면 아무에게든지 쉽게 꺾이지만 하나로 뭉치면 아무에게도 지지 않을 것이다.”²⁴⁾

알란 고아의 교훈을 잘 지켜서 그 후손들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였다.

인용문에 나오는 “밤마다 밝은 누런 사람이 게르²⁵⁾의 천창이나 문의 틈새로 빛으로 들어와 내 배를 문지르고, 그의 빛은 내 배로 스며드는 것이었다. 달이 지고 해가 뜰 새벽 무렵에 나갈 때는 누런 개처럼 기어나가는 것이었다.”는 말은 알란 고아가 月光으로 임신했다는 말이다. 당연히 실제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24) 《몽골 祕史》1卷

25) 몽골 전통 가옥

하지만 이러한 비현실적인 이야기 속에는 오래 전부터 이어져오는 신화의 상징이 존재하고 있다.

漢族의 신화에서 빛의 감응에 의한 帝가 탄생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帝의 어머니 附寶는 번개가 北斗星을 감싸고 樞星의 빛이 들판을 비추는 것을 보고 감응을 받아 25개월 동안 임신하였다 壽丘에서 제를 낳았다.

母曰附寶見大電繞北門，樞星光照郊野，感而孕，二十五月，而生帝於壽丘.²⁶⁾

2-2. 토템에 따른 분류

신화는 종교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샤머니즘, 토테미즘 등 원시 신앙과 종교의 변천과 함께 신화도 그 영향을 받았음은 틀림없다. 토테미즘은 몽골과 중국의 신화(혹은 역사)에 많은 흔적을 남기고 있다.

① 몽골족 토템

1. 늑대와 사슴

몽골민족의 고대 신화에서 유목민들의 선조는 늑대이라고 말한다. 『몽골비사』에 따르면 “지고하신 하늘의 축복으로 태어난 부르트 촌이(푸른 늑대)있었다. 그의 아내는 호아 마랄(사슴)이었다“라고 하여 칭그스칸의 뿌리를 흰 암사슴과 늑대에서 찾는다. 유목민들은 늑대와 사슴을 하늘의 점지를 받은 성스러운 존재로 묘사해왔으며 그들의 조상이라 하여 토템으로 삼았다는 기록들이 많다.

늑대가 초원민족의 수조(獸組)이자 종사(宗師)이며 전신(戰神)이다.²⁷⁾ 몽골인들은 이 세상 어떤 힘으로도 초원 늑대의 불굴의 투지와 숭고한 생명력을 꺾을 수 없다고 믿는다. 늑대는 탁월한 통찰과 인내심으로 광대한 초원을 지배한 지혜의 신이며, 버려진 아이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유일한 동물이고, 그 아이는 후세 민족의 왕 되었다는 신화 이야기도 있다. 몽골 신화에 나오는 늑대는 본질적으로 자비로운 신이며 깊은 존경을 받았다.

26) 《竹書紀年》

27) 《몽골비사》

몽골인들은 늑대를 직접 늑대라고 부르지 않고, 향가이 (태산) 라고 돌려서 말하는 관습이 있고,²⁸⁾ 칭기스칸이 늑대 사냥을 금지했다는 사서(史書)의 기록이 있으며, 과거 몽골족을 구성하는 씨족 가운데 Chonos(초노스) 늑대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씨족이 존재했다.

2. 흉노의 흰 늑대와 흰 사슴

匈奴는 夏后氏의 후손이다. 堯 임금 이전에는 山戎, 獫狁 또는 훈족이라고 하였는데, 중국 북방에서 이목하여 살아왔다.

夏나라 말기에 公劉도 흉노가 되어 그 자손이 3백여 년을 흉노와 같이 살았고, 그 후 太王때에 이르러 흉노와 갈라져서 岐山 아래로 이주하여 周라는 고을을 이루었다. 다시 1백여 년이 지나서 서백(西伯) 창(昌)때에 흉노와 한 갈래인 견이(畎夷)를 정벌하였고, 또 십여 년 후에는 그 아들 무왕(武王)이 은나라를 멸하고 주나라를 세우니 흉노가 사신을 보내와서 화친하였다. 이 후 2백여 년에 주나라 목왕(穆王)이 견용(犬戎)을 공격하여 네 마리의 회 늑대(白狼)와 네 마리의 흰 사슴(白鹿)을 잡아왔다.

이때부터 흉노는 중국에 원한을 품고 빈번히 침범해 왔다.²⁹⁾

또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오손(烏孫)의 왕 군모(昆莫)의 아버지는 흉노 서쪽에 있는 작은 나라의 임금이였다. 흉노가 쳐들어와 그의 아버지를 죽이고, 갓 태어난 군모는 들판에 버려졌다. 그러자 그 아이에게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다주고 늑대가 젓을 먹였다. 그것을 신비롭게 여긴 흉노 선우가 군모를 데려다 키웠다. 군모는 장성해서 용감한 장수가 되어 수많은 공을 세웠다. 선우가 다시 그 아버지의 백성을 군모에게 주어 서역에서 오래도록 지키게 하였다……. 그 선우가 죽자 군모는 그의 무리를 이끌고 멀리 옮겨가 나라를 세우고, 흉노의 예를 받들려 하지 않았다. 흉노가 군대를 공격했지만 이길 수 없자 그만 두려움에 물러났다.³⁰⁾

28) 몽골인들은 예로부터 입말의 힘 또는 입말의 마력을 믿고 이를 각종 의례 일상생활에서 중요시 하였다. 예를 들면 몽골인들은 높은 산이나 고지를 산신의 거주처로 인식하고, 그 산의 실제 이름을 부르는 대신 하이르한(자비로운), 운두르(높으신), 보그드(신성한) 등으로 돌려서 말한다. 위에서 늑대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도 이러한 관습의 소산이다.

29)《漢書·匈奴傳》

2-2-2. 한족 토템

고대의 기록에는 수많은 용들이 비로 대지를 운택하게 하기 위해서 소집된다는 내용이 있다. 물의 신인 그들은 구름을 뚫고 날아가기도 하고, 아주 깊은 물속에 잠복하기도 한다. 그들의 형상은 복잡한 것으로 나원(蘿願)이라는 인물은 자신이 만든 사전 「이아익(爾雅翼)」에 용의 신체적 특성을 아홉 마리 동물들에 비교하여 기록해놓았다. “뿔은 사슴과 같고, 머리는 낙타와 같으며, 눈은 악마, 목은 뱀, 배는 조개, 바늘은 물고기, 발톱은 독수리, 앞발은 호랑이, 귀는 소와 같다.”³¹⁾ 용은 다른 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창조 과정이나 자연의 순환 현상을 눈에 보이도록 묘사하는 데에 이용된다. 흔히 뱀의 형상을 한 것으로 믿어진 대지의 여신 와(媧)는 하늘의 용 한 쌍이 끄는 수레를 타고 세계를 일주한다고 한다.

중국인들에게 용(龍)은 하늘의 생식력인 양(陽)의 화신이였다. 중국 황제의 옥좌는 용상(龍床)이라고 불렸고, 지상에 나타난 신의 형상으로 생각된 황제의 얼굴은 용안(龍顏)이라고 일컬어졌다. 봄이면 용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한다. 그러나 너무 높이 올라가면 눈발이 메마르게 된다. 용은 비를 가져다주며, 수계(水界) 구름, 강, 늪, 호수, 바다의 주인이라고 믿어서이다. 가을이 되면 용은 연못 깊숙이 잠겨 그곳에서 다음 봄까지 머물렀다. 용은 자유자재로 몸집을 누에 크기로 줄이거나 하늘에서 땅까지 닿을 만큼 거대하게 부풀릴 수도 있다.³²⁾

3. 몽골족 신화와 한족 신화의 특징

1) 몽골 신화

유목민들과 농민들은 끊임없는 역사 관계를 지녔다. 유목민들은 중국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민족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했던 역사적 경험이 있으며 어쩌면 건설과 정착보다는 파괴와 이동을 본질로 하는 유목적 삶의 형식이 잦은 분쟁을 야기했는지 모른다. 전쟁과 유목, 그리고 자연의 혜택을 별로 받

30) 司馬遷《史記》

31) 楊巴依 <蒙漢創世神話比較>, 《內蒙古師範大學學報》, 1994

32) 前揭論文

지 못했던 고대 유목민들은 자연히 실질을 숭상하고 상상의 세계를 멀리 함으로써 옛 전설을 집대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이러한 전통 때문에 신화의 빛을 보지 못했다. 신화 속에는 옛 선조들이 부딪친 자연 조건과 생활환경 및 민족성 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몽골 신화 체계는 해당 사회 구성원들의 생업에 따라 몇 차례의 변화를 겪었으며 수렵에서 목축으로 생업상의 변화는 그들의 우주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를 가져왔을 거라고 평가된다.

몽골의 신화 전설은 대부분 구전으로 전해온 것이기 때문에 중국신화 만큼 풍부하지 못하다. 몽골의 지리적인 환경과 유목이 신화의 형성과 보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몽골민족이 지닌 신화적 상상력은 이후에도 여전히 존속되었으며, 특히 몽골 대제국의 형성설화를 형성하는데도 영향을 끼쳤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몽골비사》에 테무진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하늘과 대지에 감사하는 대목에서도 그 흔적을 엿볼 수 있다. 테무진은 아버지의 盟友인 토릴칸(웅칸)과 자신의 맹우인 자모하의 도움으로 숙적 메르기드족을 섬멸하고 나서 전쟁 승리의 원천을 하늘과 대지의 도움으로 돌리고 있다.

천지가 힘을 더해
권능 있는 하늘이 이름 지어 주시고
어머니이신 대지에 이르게 하시어
사나이 원수의 메르기드 사람들을
그들의 가슴도 비워 놓았습니다.
그들의 친척들까지 죽였습니다.
그들의 남은 자들도 거두었습니다.³³⁾

테무진이 메르기드족에게 쫓겨 보르한 할돈으로 들어가 목숨을 구한 다음, 산에서 내려와 행한 일련의 행위에 관한 기록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테무진이 아버지 예수게이 시절로 돌아간다. 예수게이는 메르기드족에게 시집가던 후엘룬(테무진의 어머니)을 현제들과 납치하여 아내로 삼았다. 그 후 메르기드족은 테무진

33) 유원수 역주,《몽골비사》 2004, 78-79쪽

일가(一家)에 대하여 원한을 품고 그가 아내를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에 그의 숙영지(宿營地)를 습격한다. 혼란한 와중에 그의 아내 부르테는 타고 갈 말이 없어 뒤처지고 결국 메르기드 군사에게 붙잡힌다. 그 사이 테무진 일행은 보르한 할돈으로 도망가지만 메리기드족의 추격을 받는다. 그들은 산을 삼중(三重)으로 둘러싸고도 결국 테무진을 잡지 못했다. 이렇게 살아 남은 테무진은 보르한 할돈에서 내려와 산에 대하여 한없는 감사를 표하고 가슴을 치며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

보르한으로 올랐다.

보르한 할돈으로

이[蝨] 같은 내 목숨은 도망했다.

내 목숨만 아껴,

한 마리 뿐인 말을 타고,

빨 사슴의 길을 길 삼아,

나뭇가지 집을 집 삼아,

할돈 위로 올랐다.

보르한 할돈에게

귀뚜라미 같은 그런 목숨을 보호 받았다.

나는 몹시 무섭다.

보르한 할돈에

아침마다 제사 지내리라!

날마다 기도하리라!

내 자손의 자손까지

깨닫게 하리라!³⁴⁾

그는 이렇게 말하고 해를 향해 허리띠를 풀어 목에 걸고, 모자를 팔에 끼고, 손으로 가슴을 치며, 해 쪽으로 아홉 번 무릎을 꿇고 젓(술)을 뿌려 바치고 맹세했다.

이렇듯 몽골의 신화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후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으며,

34) 유원수 역주,《몽골비사》 2004, 65-66쪽

이를 통해 하나의 관습을 형성하기도 했다.

‘몽골’은 몽골리아 초원에서 동북방 변두리에 거주하던 집단이었다. 9세기 중반 위구르 제국 붕괴 이후 몽골리아로 이주해 간 집단들 가운데 가장 뒤늦게 이동의 대열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만큼 중심부로 파고들어 가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몽골은 11세기부터 오는 강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지만, 오논·케를렌·톨라 이 세 개의 강이 시작되는 보르한 할돈 산 부근의 소위 ‘삼하三河의 발원지’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세기 중반이 되어서였다. 그리고 그 곳은 후일 칭기스칸과 그를 추종하는 몽골인들의 ‘고향’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그 당시 초원 지역 여기저기에 분포한 사람들은 이미 치열한 대립과 전쟁으로 밤낮을 지새우고 있었고, 몽골인들도 이 싸움에 휘말려 들 수 밖에 없었다. 『집사』라는 책에는 칭기스칸의 7대조 두툼 메넨의 자식들이 Jalair 라는 집단과 초원의 사용권을 두고 분쟁이 벌어져 거의 몰살되다시피 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유목 집단 사이의 전쟁은 날이 갈수록 격화되었고, 그러한 상황은 바이칼 호 동쪽에서 발견된 화살촉의 종류와 크기의 변화에서도 확인된다. 6~10세기에는 골촉骨鏃과 철촉鐵鏃의 비율이 1 대 3.7로 철촉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뿐만 아니라 철촉의 크기에도 변화가 생겨, 6~10세기에 평균 길이가 3.74센티미터, 폭이 1.87센티미터이던 것이, 11~12세기가 되면 평균 길이 5.42센티미터, 폭 2.55센티미터로 대형화되었다. 이는 적을 제압하는 데에 보다 치명적인 살상무기가 사용되었으며, 동시에 무기의 원료로서 철의 확보가 집단의 운명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당시 치열하게 벌어졌던 전쟁은 궁극적으로 초원에서의 헤게모니를 두고 벌어진 것이었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철의 產地를 장악하려는 것과 직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집사』에서 ‘새해를 맞는 첫날 밤’에 칭기스 칸 일족의 관습과 의례는 대장장이의 풀무와 화로와 석탄을 준비하고 얼마간의 쇠를 달군 뒤 모루 의에 올려놓고 망치로 때려서 길게 늘이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었다고 기록하였다. 그들이 이런 의식을 올리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 즉 몽골인들은 원래 ‘에르구네 쿤’이라는 협곡에 갇혀 있었고 처음에는 거기서 탈출할 방도를 찾지 못했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항상 쇠를 녹이곤 하던 철광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하기로

피를 내었다. 그들은 70마리의 소와 말을 잡아 그 껍질로 풀무를 만들고 철광
 밀에 많은 양의 장작과 석탄을 쌓고 불을 붙여 풀무를 일시에 붙여댔다. 그랬더
 니 ”그 협곡이 녹아내려서 쇠가 거기서 끝도 없이 흘러나왔고 길이 하나 나타나
 게 되었다“. 칭기스 칸 일족은 바로 이 탈출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그믐날 밤에
 鍛冶의 의식을 치렀다는 것이다. 이 설화는 몽골인들이 에르구네 쿤, 즉 아르군
 유역에서 몽골리아로 이주했던 역사적 기억을 응축하여 반영하고 있다. 동시에
 그들이 일찍부터 冶鐵 기술을 알고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칭기스 칸의 본명
 인 ‘테무진’은 예수게이가 타타르족의 수령 테무진 우게를 붙잡았을 때 그가 태
 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테무진’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고 하였
 다. 그러나 테무진의 막내동생 ‘테무게’, 여동생이 ‘테물룬’으로서 모두 ‘쇠’를 뜻
 하는 ‘테무르’temur 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런 사건과의 관련성을
 넘어서 당시 유목민 사회에서 ‘쇠’가 매우 중요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튼 몽골인들은 주변 집단과의 전쟁을 통해서 조금씩 세력을 강화시켜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거란을 무너뜨린 여진이 금나라를 건설한 뒤 초원에 대한
 통제권이 약화된 틈을 타서 변경지대에 대한 약탈전도 감행하였다. 중국측 기록
 에 의하면 1135년에는 ”맹고사萌古斯(몽골)가 변경을 뒤흔들었다“고 하고, 1139
 년에는 이들을 치러 갔던 금군이 오히려 패배하였다고 한다.

초원의 정치적 혼란은 몽골인들에게 안정된 정치체제를 갖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안정된 정치체제가 자리 잡히지 않고 국가라는 것조차 존재하지 않은 상
 황에서 유목 집단들 사이에 벌어지던 대립은 날로 격렬해졌고, 친족이라는 것도
 그다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했다.

‘새해를 맞는 첫 날 밤’은 칭기스칸 시대가 돼서야 문자로 집사에 기록되어 남
 았다. 그 전에 유목민 사회에 문자가 없었고, 그때 당시 대중의 입말을 통해 전
 해 내려 왔고, 칭기스 칸 시대에 채록하여 남았다. 이 신화에서 고대 몽골인들의
 통합의 힘, 집단의 自強不息의 정신, 자기들의 노동과 지혜를 통해 자유롭고 행
 복한, 아득하고 넓은 천지를 열고, 후세들에게 발전과 자유를 상속한 아주 귀한
 신화 이야기다.

후에 몽골고원이라고 불리게 된 고원에 갑자기 유목민의 정치 연합체가 출현
 했다. 그 이름은 예게 몽골 울루스(Yeke Mongol ulus)이다. 즉 몽골 대국이다.

이것이 모든 것의 발단이었다.

중국의 경우 愚公移山이 있다. 漢族의 <列子>의 『湯問』에 우공이 산을 옮기는 내용이 나온다.

우공이산과 쇠를 녹이는 이 두 신화에는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끈기있게 대자연에 도전하는 두 민족의 끈질기면서도 낙관적인 인생관이 깃들여 있다. 후세들에게 남긴 이야기는 같지만, 문화 배경이 다르다. 쇠를 녹이는 신화 이야기 속에서 통합의 힘을 알 수 있고, 우공이산의 경우 漢민족의 집안의 어른을 공경하고, 어린이들의 어른에 대한 예절과 물려주고자 한 정신 재산을 받은 자세를 볼 수 있으며, 중국의 과거의 종족주의를 볼 수 있다.

2) 한족 신화

1. 노동의 가치가 강하게 표출됨

노동의 가치를 잘 드러내 주는 신화에는 하늘과 땅을 갈라놓은 반고나 오색들을 녹여 뚫어진 하늘을 메운 여와, 농사짓는 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준 후직, 그리고 치수의 위업을 이룬 곤과 우 등의 신화가 그것이다. 생산력이 낮고 피하기 힘든 자연 재해와 투쟁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생존의 어려움을 느끼며 살아 온 원시사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노동에 대한 그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해주는 존재였던 것이다.

2. 영웅들의 불굴의 정신을 표현

어떤 이상에 도달하기 위하여 용감하게 싸우고 자신을 희생하며 도전하는 강인한 정신이야말로 전통적 민족성을 면밀히 보여주는 것이다. 가장 전형적인 예가 바로 ‘곤’이 천제에게서 치수를 했다는 이야기이다. 곤은 우산에서 천제에 의해 죽음을 당하지만 그의 시체는 썩지 않고, 오히려 삼 년이 지난 뒤 그의 뱃속에서 아들인 우가 나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치수의 위업을 달성한다.

3. 봉건사회의 부당한 질서 속에서 폭군에 대항하는 정신 나타남

주(周)의 선왕이 두백을 억울하게 죽게 했는데 이미 죽은 두백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사냥의 즐거움에 빠져있던 선왕을 활로 쏘아 자신의 원수를 갚은 일이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는 민중과 잔혹한 통치자는 결코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대립의 위치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 청년남녀의 애정과 혼인의 자유 추구 의지 반영

이 신화들의 주제는 청년남녀의 애정과 혼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봉건세력에 대하여 불굴의 의지로 대항하였던 것이다. 견우직녀의 신화가 처음으로 그런 노래를 노래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봉건사회의 엄격했던 예(禮)와 법(法)에 도전의 창날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4. 문학과 신화 - 중국을 중심으로

1) 신화와 소설, 산문

모든 중국문학사나 중국소설사는 “중국소설은 중국신화에서 유래되었다”³⁵⁾고 말하고 있다. 신화와 소설은 그것의 본질적인 특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신화는 곧 소설이라고까지 할만하다. 그래서 중국소설의 원류(源流)로서의 중국신화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곧 중국소설은 신화에서 기원하였다는 뜻으로도 이해 할 수 있다.

신화는 문체 자체로서 중국 소설에 영향을 끼친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신화의 소재와 정신 즉 의식형태 면에서 소설에 영향을 준 측면도 강하다. 즉 소설의 풍부한 상상력, 자연정복의 낭만주의 정신은 후대 소설에 큰 영향을 미쳤다.³⁶⁾

신화는 소설 문학으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변화를 요구받게 되는데, 신화 원형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쉬운 점이지만 문학의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신화 자료의 운용과 그 변형은 고무적인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신화의 소설에 대한 영향은 지대하지만, 한편으로는 신화의 소설화를 막는 요인도 있다. 바로 신화의 역사화인데, 이러한 변화로 신화가 예술화되지 못하여 소설 관념과 문체의 자유로운 발달에 저해 요소가 되기도 한다.³⁷⁾

신화가 길고 긴 시간의 격차를 두고서도 현대문학 속에서 재구축되는 이유는

35) 이인택, 《중국신화와 문학》, UUP(울산대학교 출판부)

36) 물론 신화가 후대 문학에 모티프나 주제, 구성 면에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단지 작가의 주관을 전달하기 위해 도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신화는 결정적 작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손작(孫綽)의 「삼월삼일난정시서(三月三日蘭亭詩序)」에서는 신화를 통해 시간의 빠름을 설명할 뿐 다른 뜻을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37) 이유진, 「중국신화의 역사화 연구」(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4), 16쪽 참조

아마도 작가들의 소재와 빈곤, 현실 기피 및 환멸, 복고주의, 신화에 대한 동경 등 여러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여튼 신화는 후대에 나타나는 문학 작품의 원형으로서 민족의 정서와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상상력을 키우는 역할을 담당했다.

먼저 하늘과 세상이 생겨나고, 구 사이에 만물이 창조되고, 천지간에 영웅 나타나 인간세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순서.

하늘과 땅이 아직 형성되기 전, 공간은 텅 비어 형체가 없었기 태소(太昭)라 불리었다. 도는 허공에서 시작하였고, 허공이 우주를 만들고, 우주에서 기가 생겨났다. 기는 자유였는데 청양한 것은 얇게 퍼져 하늘이 되고, 무겁고 탁한 것은 땅이 되었다. 그래서 하늘이 먼저 이루어지고 땅은 후에 만들어졌다. (天墜未形, 瑪瑪翼翼, 洞洞瀾瀾, 故曰太昭, 道始于虛霏生宇宙, 宇宙生氣. 氣有漢垠, 清陽者薄靡而爲天. 重濁者凝滯而爲地, 清妙之合專易, 重濁凝竭難, 故天先成而地後定.)³⁸⁾

텅 빈 무형의 상태 태소에서 허곽, 즉 허공이 생기고, 다시 우주가 생기고 기가 생겼다. 그런데 청양하고 청묘한 것은 하늘이 되고, 중탁한 것이 엉키고 응고된 기는 땅이 되었다고 했다. 이렇게 개벽으로 천지창조가 이룩되었다. 청양하고 청묘한 기가 올라가 하늘이 되었다고 한 것으로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신성시하였음을 볼 수 있다. 하늘과 땅을 고대 중국인들은 처음부터 확실하게 분별하였음을 이 같은 신화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史記》 「五帝本紀」에 기록된 전설 속의 제왕들의 이야기가 영웅신화에 속한다. 여와(女媧)나 치우(蚩尤), 과보(夸父)와 후예(后羿), 우(禹) 역시 대표적 영웅들이다. 여와 보천(補天)이라든가 치우와 황제(黃帝)의 전쟁, 과보의 축일(逐日)고사, 후예의 사일(射日)신화 등은 모두 좋은 이야기거리가 되는 내용들이다. 영웅신화의 내용을 보면 황제나 여와처럼 씨족의 선조가 된 인물, 복희(伏羲)나 신농(神農), 수인(燧人)처럼 문화의 창조자가 된 인물, 그리고 요(堯)·순(舜)·우(禹)처럼 이상적인 정치가가 된 인물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38) 《淮南子·天文訓》

치우와 황제의 고사를 간단하게 보면 다음과 같다.

황제는 소전의 아들이다. 성은 공손, 이름은 현원이다. 신이하고 영묘함을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말할 줄 알았다. 어려서는 총명했고, 성장할수록 돈후하고 민첩했다. 현원 때에는 이미 신농씨의 세력이 쇠하여 제후들이 서로 침략을 일삼고 백성들에게 폭정했는데 신농씨는 이것을 정벌할 수 없었다. 이에 곧 현원이 창과 방패를 쓰는 방법을 익혀 조공을 바치지 않은 제후들을 정벌했다. 모든 제후들이 찾아와 따르게 되었다. 그런데 치우는 매우 포악하여 칠 수 없었다. 염제가 제후들을 침략하려고 하자 제후들은 모두 현원에게 귀순하였다. 이에 현원은 곧 덕을 닦고, 병사를 정돈하고, 오기를 다스리고, 오곡을 심고, 만민을 보살피고, 사방을 구획지었다. 그리고 곰, 송냥이, 범, 흰 여우, 호랑이들을 훈련시켜 염제와 싸웠다. 세 번을 싸운 후에 이겼다. 이때 치우가 난을 일으켜 황제의 명령을 어기니 이에 곧 황제는 제후의 군사를 징집하여 탁록벌에서 치우와 더불어 싸워 드디어 치우를 사로잡아 죽였다. 그래서 제후들은 모두 현원을 존경하여 천자로 삼고 신농씨를 대신하여 황제로 삼았다.(皇帝者, 少典之子, 姓公孫, 名曰軒轅, 生而神靈, 弱而能言, 幼而徇齊長而敦敏, 成而聰明. 軒轅之時, 神農氏世衰, 諸侯相侵伐, 暴虐百姓, 而神農氏弗能征. 於是軒轅乃習用干戈, 以征不享, 諸侯咸來賓從. 而蚩尤最爲暴, 莫能伐. 炎帝欲侵陵諸侯咸歸軒轅乃修德振兵, 治五氣, 藝五種, 樵萬民, 度四方, 教熊羆貔貅獬豸, 以與炎帝戰於阪泉之野. 三戰, 然後得其志, 蚩尤作亂, 不用帝命, 於是黃帝乃徵師諸侯, 與蚩尤戰於涿鹿之野. 遂禽殺蚩尤. 而諸侯咸尊軒轅爲天子, 代神農氏, 是爲黃帝.³⁹⁾

여기서 영웅 신화는 소설과 관계가 밀접한 것을 볼 수 있다. 소설 자체가 지니는 속성이 영웅을 중심으로 엮은 故事와 잘 연결되어서이다. 신화에서 비롯된 <소설>은 다시 전설<傳說>·우언(寓言)·신선고사(神仙故事)·귀신(鬼神)·지괴(志怪)·전기(傳奇)·화본(話本)·간사(講史)·백화소설(白話小說)의 순으로 변화하였다.

2) 신화와 시

《詩經》과 《楚辭》가 신화의 영향을 받은 첫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39) 《史記》, 「五帝本紀」

굴원(屈原)의 작품으로 대표되고 있는 초사(楚辭)의 여러 작품 가운데 상당수의 편장(篇章)에서 초(楚)나라의 신(神)과 신화(神話)에 관련된 작품이 있다. 널리 알려진 대로 초사는 선진시대(先秦時代) 중국 남방의 문학작품을 대표하고 있는데 『詩經』과는 여러 면에서 비교되는 운문(韻文)이다. 지리적으로도 양자강 남쪽지방에서 굴원이 중심이 된 몇몇 작가들에 의해 지어진 난만적인 내용의 작품으로 사상적으로는 도가(道家)의 영향을 받았다.

《詩經》은 중국 최초의 시가 총집으로, 우왕, 설, 후직 등 신성을 띤 신화 영웅들을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노래가 다수 수록되어 있다.

먼저 우왕의 치수에 관해서는 《詩經》의 <장발(長發)>, <문왕유성(文王有聲)> 양편에 각각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濬哲維商 長發其祥.

洪水茫茫, 禹敷下土方.⁴⁰⁾

밝고 밝은 이 상나라, 오래 전부터 상서로운 징조 나타났네.

홍수가 망망한 천지 뒤덮었을 때, 우 임금이 천하 땅 정리하셨네.

豐水東注, 維禹之績.

四方攸同, 皇王維辟, 皇王烝哉!

풍수 물이 동으로 흐르는 것은, 우 임금의 공적.

사방의 제후들 모여 와, 대왕님을 받아들여, 훌륭하여라 대왕님!

또 우왕의 치적에 대해서는 「신남산(信南山)」, 「한혁(韓奕)」 영편에 각각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길게 뻗은 저 남산, 우 임금이 다스렸네. 信彼南山, 維禹甸之.

높고 큰 양산, 우 임금이 다스렸네. 奕奕梁山, 維禹甸之.

이처럼 신화 인물 우왕의 치수와 치적의 고사가 역대 왕들의 공적을 기리며

40) 《시경》 역문은 하정옥 역

교화의 역할을 하는 소재로 변모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상 민족의 시조인 설의 기이한 출생에 관해서는 「현조(玄鳥)」에 잘 나타나고 있다.

天命玄鳥, 降而生商, 宅殷土茫茫
하늘이 제비에게 명하시어,
내려와 상(商)나라 조상 낳아,
광막한 은(殷) 땅에 살게 하셨네.

신화를 운용, 변용한 유형으로는 신화나 신화 인물이 역사나 역사 인물로 변형, 각기 다른 신화 요소들의 의도적 결합, 비극 신화 영웅의 미화, 신인(神人)의 인격화, 신인과 신선의 의도적 결합 유형을 들 수 있고, 시인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불우(不遇)동정, 비분강개, 인간 한계에 대한 절망, 현실적 무기력, 슬픈 시대상황, 이상 동경, 불평과 울분, 신전 장수 추구, 사군(思君), 현실과 이상의 모순을 표현하기도 하고, 시의 전기적 색채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4-3. 신화와 漢賦

漢代의 대표적 문화작품이 부(賦)이다. 漢代 초기에 사마상여(司馬相如)가 지은 「상림부(上林賦)」와 「자허부(子虛賦)」 그리고 중기의 양웅(揚雄)이 지은 「우렵부(羽獵賦)」, 「감천부(甘泉賦)」 등에 신화 인물의 이름이나 신화적 지명, 그리고 신화 속에 등장하는 동물의 이름 등이 인용되고 있다. 복비(宓妃)나 치우 등 신의 이름, 우연(虞淵)과 현포(懸圃) 등 신화 속의 지명, 효양(梟陽)이나 해치(獬豸) 등 신화 속의 동물들 이름이 나오는데 그리 많지는 않다.

동한에 이르러 장형(張衡)이 지은 「서경부(西京賦)」와 「동경부(東京賦)」에는 신화에서 자료를 취한 것이 상당히 많다. 「동경부」에는 특히 궁정에서 대나(大儺)를 행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환상적 신화 자료들을 사용하여 역귀(疫鬼)를 쫓아내는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한편 「서경부」에도 궁정에서 잡희(雜戲)가무(歌舞)를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신화적인 것들이 자주 등장한다. 또한

그의 또 다른 작품인 「사현부(思玄賦)」에는 소호, 구망, 백우, 축융, 현원, 옥수, 풍이, 축룡, 왕모, 복비, 풍룡, 운사, 응룡, 전옥, 현명... 등의 신과 봉래(蓬萊)·영주(瀛州)·부상(扶桑)·곤륜(昆侖)등의 신화 지명이 풍부하게 등장한다.

그러나 漢代의 부는 대부분 궁정시인들에 의해 쓰여져 왕에게 바쳐졌던 것으로 풍자의 의미가 약간 들어 있기는 하지만 별다른 작용을 하지 못하였다. 특히 그들이 신화에서 신의 이름이나 지명을 빌려왔다 해도 그것은 신화 자체를 소개하기 위해서였다기 보다는 화려한 문체 기이함과 화려함을 더하기 위한 것일 뿐 별다른 의미는 없어 보인다. 굴원이 『楚辭』에서 신화를 채용했던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신화의 상징성과 상상력, 그리고 적극적인 낭만주의 정신이 시가의 특성과 부합되어 시인들이 신화를 소재로서 애용하게 된 것이며, 향후에도 낭만주의 정신이 살아 있는 한 신화는 계속 시인의 조래 속에 용해되어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다.

Ⅲ. 結論

이상으로 두 민족의 신화 유형 분석을 통하여 문학의 발달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본론에 논의된 사항을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몽골과 한족 신화가 문학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필자의 생각을 덧붙임으로써 연구의 결론을 하려고 한다.

結論적으로 말하면, 신화는 단순히 아득한 고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준 이야기가 아니라, 후세에 남긴 큰 유산이며 역사의 역사이다. 역사는 민족의 뿌리이다. 신화에는 옛 선조들이 부딪친 자연 조건과 환경 및 민족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신화의 오랜 역사적 반복이 시대를 거치면서 현대에 이르렀다. 신화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조상들의 삶과 사상, 그리고 슬기와 지혜 등을 엿볼수 있게 한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또한 역사가 되어 후대에 전해지고, 신화가 되면서 이렇게 신화는 영원히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신화가 문학으로써 운용되어 계속해서 전승되어 내려온다는 것이 다르게 표현되어 달라져 보일 뿐 그 뿌리는 신화이다. 신화가 존재하는 한 문학의 발전은 영원히 지속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신화와 문학이라는 주제는 명료하지만, 관련된 학문영역이 워낙 광범위해서 필자의 조금한 지식으로 늘 부족하다는 점을 느꼈다

이번 연구는 몽골인의 성전(聖典)이라 평가받는 대표적인 역사문헌 《몽골비사》 속에 있는 신화들을 다루어 보는 나름대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셈이다. 《몽골비사》에 대한 이제까지의 연구는 역사 및 민속학적인 측면에서만 진행된 바 있다. 신화를 연구함으로써 역사 이전의 역사를 또한 함께 추측해 볼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두 민족의 창세 신화, 영웅 신화, 자연 신화를 살펴보았다. 물론 이밖에도 여러 신화들이 있지만, 신화의 가장 기본 틀을 이루고 부분이 이 세 가지 신화라고 판단하였고, 공통점 비교를 해 보았다. 두 민족의 창세신화는 공통적으로 아무것도 분리되지 않고 분별되지 않았던 구성을 지니고 있다. 두 민족 신화들이 이처럼 기본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민족과 언어,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기 나름의 고유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상과 같이 신화가 문학의 근원으로 판단하여 접근 해 보고 두 민족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참고 문헌

1. 서적

- 정범진, 《중국문학사》, 서울 : 학연사, 1998
- 유원수, 《몽골비사》, 서울 : 2001
- 司馬遷, 《사기열전》, 서울 :2015 6.15
- 박정예, 심치열 《신화의 세계》
- 하정옥 역, 《시경》, 서울 : 평범사, 1976
- 袁珂 《中國古代神話》 2012
- 이인택, 《중국신화의 세계》, 서울 : 풀빛,2000
- 세계 창조신화(신화아카데미) 2001
- J.F 비얼레인 《세계의 유사 신화》 1996
- 김윤상 《신화 철학》 1,2
- 임재해 《민족신화와 건국영웅들》 2006
- 袁珂 《古神話選釋》, 《山海經校注》, 《神話論文集》, 《中國神話大詞典》, 《中國神話傳說》
- 烏丙安 《민간문학개론(民間文學概論)》, 《中國民俗學》, 《神祕的薩滿世界》
- Tserensodnom 《MONGOL DOMOG》 Ulaanbatar : 1999
- Sendenjav Dulam 《MONGOL ULGER DOMOG》 : 1983
- Sendenjav Dulam 《MONGOL ULGER DOMOG》 1989

2. 학위 논문

이유진 <중국신화의 역사화 연구>(연세대학교 박사 논문)

이이택 <중국 영웅 신화의 비교 분석>(울산대학교,1999)

郭珠英 <한중 신화의 비교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

杨巴依 “蒙漢創世神話比較” <內蒙古师范大学学报> 1994

满都呼 “蒙古神話論文” <中央民族大学学报> 2007